



올해 교재는 더 세세한 설명과 더 많은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 적용된 문법 교과서, 그간의 EBS 교재에서 언급한 개념들, 7차 교육과정 내의 05학년도 수능, 6월·9월 평가원 문제들과 교육청 문제들을 비롯한 작년 2015학년도 수능 A형·B형 문제들까지 10년치 문법 기출의 총 집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교재는 어떤 책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의문없이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해보세요.

1. 개념을 이해하세요.

시중에 수많은 기출 문제 해설서가 존재하지만, 2015 A형·B형 수능의 문법 부분은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013학년도 수능까지 2문제에 불과하던 문법 문제가 2014학년도 수능부터 5~6(A형은 11번~15번, B형은 11번~16번)문제로 크게 늘었고, 구체적으로는 ‘비문학[언어]’(현재의 ‘독서’)로 출제되던 부분이 문법으로 전환되어 독해만으로 문제 풀이가 가능했던 이전과는 달리 기본적인 교과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문제 역시 바로 그런 개념들이 제시된 문제였고, 이러한 경향은 2014학년도 예비수능, 6월, 9월 모의평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결국 수능 역시 기본적 개념을 전제로 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능(2013학년도까지의 수능)과는 달리 6월, 9월, 수능 A형·B형 모두 상위 오답률 5위 문제 안에 문법 문제가 들어갈 정도로 실제로 수험생들 역시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개념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인 문법 개념은 문제를 풀기 위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 바로 실전에 적용해 봅시다.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풀다보면, 어느 순간 답만 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와 관련된 부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풀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수능은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의 개념이 상당수 반영된 ‘문법’ 영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법 문제의 기출 문제 분석은 특히, 문제들을 범주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들을 모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파트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고 보게 되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끝’에선 다른 기출 문제 해설서와 달리 개념 설명뿐만 아니라 개념의 기출 빈도, 출제 중요도를 표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직접 난이도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실어 어떤 양상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부분은 교재 활용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

4. 문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교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끝낸 후의 생각은 크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많이 풀다보면, 점점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틀린 문제는 쌓여가고, 점점 답은 외워지고, 맞췄는데도 뭔가 째름하고.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개념을 다 정리하고, 실전에 충분히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확인될 때예요. 아직 개념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해보고, 문제도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틀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맞춘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생각은 종종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내가 못하는 부분이야.’라는 생각이 나의 능력을 규정짓고 한정짓곤 하죠. 문법은 확실하게만 정리하면 분명히 수능 시험장에서 이후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계속 한 두 문제씩 발목을 잡던 문법이 쉽게 풀리는 순간, 안심이 될 거고 안심하게 되면 그 때부터 내 원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거예요.

“문법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야.”

바람을 확신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힘내요. 언제나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교재 활용법

1.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이 책을 공부하려면, 연필은 잠시 내려주세요. 앞으로 하나하나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지만, 수능이란 과목은 외워서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이 많이 반영되어 개념이 필요한 2016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 역시 외우기만 해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될 부분들은 제가 철저하게 필기해 두었고, 교재 전체를 컬러로 제작하여 하나하나 중요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연필은 내려두고, 눈으로 책을 파악하세요. 외워서 는 떨리는 시험장에서 제 실력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떠올릴 수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 결국 1등급을 만들어 냅니다.

자, 이제부터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2. 문법 개념 구조도

이 책은 일반적인 목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법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도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실 수능 국어의 전반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이지만, 문법의 경우 개념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우기만 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우더라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문법 개념 구조도**’는 책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의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①”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문법 2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문법 3	
	2-1-2. 운소	정단, 연결, 억양			문법 4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 음운의 동화	㉨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문법 6
				㉭ 모음 동화	㉮ 전설 모음화	문법 7
			㉯ 두음 법칙			문법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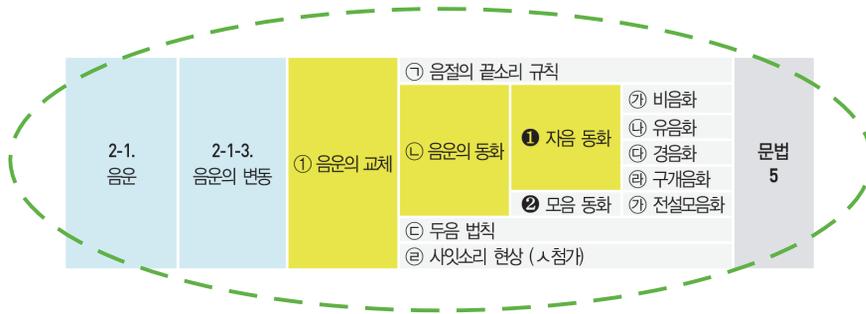
이런 구조도는 페이지를 펼칠 때마다 등장합니다.

“문법개념구조도②”



단원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며 봐야할 지 떠올리며 개념을 잡아보세요. ^^

“문법개념구조도③”



이건, 각 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로 개념의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색(노란색)을 통해 나타내고 있죠. 즉, 해당 페이지에는 ‘음운’ 중 ‘음운의 변동’, ‘음운의 교체’의 하위 개념인 ‘음운의 동화’의 종류들 중 ‘자음 동화’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측하며 봐도 되고, 개념을 정리한 후에 표를 봐도 좋아요. ^-^

3. 중요도

㉠ 음운의 동화[同化] **중요도 ★★★★★**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을 나타내 주는 규칙임에 비하여, 동화 규칙은 한 음운이 형태소 경계에서 인접하는 다른 음운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도는 이 그림처럼 중요 개념 옆에 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크게 ☆과 ♣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은 수능에 직접 출제되었던 개념 중 중요 개념을 뜻하고, ★의 개수를 통해 빈출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없는 개념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상 중요 내용인 경우 역시 ♣의 개수로 중요도를 표시했습니다.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15학년도 9월 A형 11번]
자음의 조음방식

[2015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의 특성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4. 해당 개념 기출 유형

각 개념이 시작하는 맨 처음엔 교육과정과 함께 실제 그 단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 유형들을 모두 담아 한 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출제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스스로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어요.

5. 열공 tip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부분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법은 개념이 제일 중요한 데 교재로 독학을 하다보면 궁금한 부분이 넘쳐나게 돼요. 또, 이해하는 방법도 모르고 덮어두고 외우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개념을 활용할 수도 없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필요한 설명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담았습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땐 꼭 열공 tip을 봐주세요. ^-^

열공 Tip! - 자음체계

자음 체계표는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 적어도 음운 현상들을 공부하는 동안은 참고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 개념을 이해하면 기억력이 훨씬 오래가니까 ^^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를 기준으로 표를 나누어보고, 시계방향으로 돌려가며 '바닷가 횡집'(안울림 소리 부분), '마니와 라'(울림 소리)의 순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어. (크게 말하면 좀 창피할 순 있음^^;) '바닷가'의 '닷'이라는 글자 안에 'ㄷ'과 'ㅅ'이 같이 있으니 세로로 같은 위치(같은 혀끝소리)인 것을 확인하면 되고, '횡집'의 '횡' 역시 글자 안에 'ㅎ'과 'ㅅ'이 있으니 가로로 같은 위치(같은 마찰음)인 것을 확인하면 돼. 진짜 쉽지? ^^

6. 선생님의 비밀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중 의도하지 않고 들어간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캐리커처도 마찬가지로요. ^^



먼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중요개념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임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등장하면 꼭 집중해 주세요. ^^



그리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제가 등장하면 어려운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개념이 너무 어려우면 어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 주세요. ^^

7. 기출 문제

기출 문제도 의미 없이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각 개념을 완벽히 정리한 후, 해당 개념에 관한 기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능은 빨강색, 모의평가는 파랑색, 학력평가는 초록색으로 문제를 구분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바로 어떤 시험의 유형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죠. 일부러 문제에는 난이도나 중요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고 분석해야 완벽한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의 모든 문법 문제(비문학 '언어' 문제 포함, 2005학년도 6월·9월·수능부터 2015학년도 6월·9월·수능 & 2014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 10월까지의 모든 문법 문제)를 실었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은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8. 복습하기

이 책을 보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법 개념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보고 책을 덮어둔 채 시험장으로 간다면 완벽한 점수를 장담할 수 없겠죠. 제대로 공부했다면 복습은 틈날 때마다 조금씩만 해도 부담 없이 문법 점수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각 단원의 끝에는 ‘내가 쓰는 핵심정리’가 있습니다. 이곳도 일부러 제가 직접 핵심정리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디. 자칫 그 부분만 보려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중요도와 핵심 내용들은 본문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단원을 다 공부한 후 중요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의 맨 끝 부분에 **지난** '2014 · 2015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여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은 '2014 · 2015 수능 국어 1등급 김토진'의 교재후기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직접 검토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이 교재를 활용하며 썼던 효율적 방법과 책의 장점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책을 펼치기 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공부하며 틈틈이 마음을 잡기 위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끝으로 전체 개념을 다 잡고, 문제도 다 풀었다면 다시 책의 목차를 펴 보세요.

바로, ‘문법 개념 구조도’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제 맨 처음 펼쳐봤던 것과 아주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무의미해 보였던 개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뉘고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문법을 완벽히 공부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9. 당부의 말

내 능력을 한정짓지 말아요. 그대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저는 사실 독학으로 내신과 수능을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1 때 맨 처음 봤던 시험에선 전교 98등에 반 10등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 성적을 받고도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성적이 오를 거야. 남들이 말하는 대학 정도는 갈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성적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 반에서 5등 안에 들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저에게 담임선생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학마저 좌절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꿈이 필요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무도 내 꿈에 귀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날 이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를 가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를 했어요. 그게 제일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 채 공부하는 것이. 매일을 울며 방황하며

문법 개념 구조도

〈문법 1〉

[1] 국어와 얹

1. 언어의 본질

1-1. 언어와 인간		문법 1	18
1-2. 언어의 특성	① 언어의 기호성 ② 언어의 자의성 ③ 언어의 규칙성 ④ 언어의 체계성 ⑤ 언어의 창조성 ⑥ 언어의 사회성 ⑦ 언어의 역사성		

2. 국어의 구조

2-1. 음운 (음운론)	2-1-1. 음소	① 자음	㉠ 성대의 울림 여부 ㉡ 조음 방법 ㉢ 조음 위치	문법 2	26		
		② 모음	㉠ 단모음 ㉡ 이중모음	문법 3	26		
	2-1-2. 운소	장단, 연접, 억양		문법 4	31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44	
			㉡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문법 6	48
				② 모음 동화	㉠ 전설 모음화	문법 7	55
			㉢ 두음 법칙		문법 8	57	
		㉣ 사잇소리 현상					
		② 음운의 축약	㉠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문법 9	60	
			㉡ 모음 축약		문법 10	60	
		③ 음운의 탈락	㉠ 자음 탈락	① 자음군 단순화 ② 'ㄹ' 탈락 ③ 'ㅎ' 탈락 ④ 두음법칙	문법 11	62	
	㉡ 모음 탈락 ('으' 탈락)		문법 12	65			
	④ 음운의 첨가	㉠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문법 13	66		
	2-1-4. 기타	① 모음조화 ② 이화		문법 14	68		
2-2. 단어 (형태론)	2-2-1. 형태소	① 형태소의 종류	㉠ 실질 형태소 ㉡ 형식 형태소 ㉢ 자립 형태소 ㉣ 의존 형태소	문법 15	79		
		② 이형태의 종류	㉠ 음운론적 이형태 ㉡ 형태론적 이형태	문법 16	79		
	2-2-2. 단어	① 단어의 형성	㉠ 어간		문법 17	84	
			㉡ 어미		문법 18	84	
			㉢ 어근		문법 19	84	
		㉣ 접사	① 접두사	㉠ 파생 접두사	문법 20	84	
			② 접미사	㉠ 파생 접미사 ㉡ 굴절 접미사			
		㉤ 단일어		문법 21	85		
	② 단어 형성 방식	㉠ 합성어	①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 22	86		
			② 파생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문법 23	90	
		㉡ 복합어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① 명사	문법 24	98	
				② 대명사	문법 25	98	
			③ 수사	문법 26	98		

			㉔ 수식언	① 관형사 ② 부사	㉔ 성상 관형사 ㉔ 지시 관형사 ㉔ 수 관형사 ㉔ 성분 부사 ㉔ 문장 부사	문법 27 문법 28	106 106			
			㉕ 관계언	① 조사	㉔ 격조사 ㉔ 접속 조사 ㉔ 보조사	문법 29	108			
			㉖ 독립언	① 감탄사		문법 30	113			
		② 가변어	㉗ 용언	① 동사		문법 31	115			
				② 형용사		문법 32	115			
			㉘-1. 용언의 활용	② 어말 어미	① 선어말 어미		문법 33	120		
						㉔ 종결 어미		문법 34	122	
						㉔ 비종결 어미	㉔-1. 연결어미	㉔ 대등적 연결 어미 ㉔ 종속적 연결 어미 ㉔ 보조적 연결 어미	문법 35	122
							㉔-2. 전성어미	㉔ 명사형 전성 어미 ㉔ 관형사형 전성 어미 ㉔ 부사형 전성 어미	문법 36	122
2-3. 문장 (통사론)	2-3-1. 문장의 성분	① 주성분	㉔ 주어 ㉔ 목적어 ㉔ 보어 ㉔ 서술어			문법 37	144			
		② 부속성분	㉔ 관형어 ㉔ 부사어			문법 38	150			
		③ 독립성분	㉔ 독립어			문법 39	150			
		2-3-2. 문장의 구조	① 흘문장				문법 40	154		
			② 겹문장	㉔ 안은 문장	① 명사절을 안은 문장 ② 서술절을 안은 문장 ③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	④ 부사절을 가진 안은 문장 ⑤ 인용절을 가진 안은 문장	문법 41	154		
				㉔ 이어진 문장	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②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문법 42	157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㉔ 평서문			문법 43	164		
				㉔ 명령문	① 직접 명령문 ② 간접 명령문					
				㉔ 청유문						
				㉔ 의문문 ① 판정 의문문 ② 설명 의문문 ③ 수사 의문문						
				㉔ 감탄문						
			② 높임 표현	㉔ 주체 높임법	① 직접 높임 ② 간접 높임		문법 44	168		
				㉔ 객체 높임법						
				㉔ 상대 높임법	① 격식체 ② 비격식체	㉔ (아주높임) 하십시오체 ㉔ (예사높임) 하오체 ㉔ (예사낮춤) 하계체 ㉔ (아주낮춤) 해라체 ㉔ (높임) 해요체 ㉔ (낮춤) 해체				
			③ 시간 표현	㉔ 시제	① 과거 시제 ② 현재 시제 ③ 미래 시제		문법 45	176		
				㉔ 상	① 진행상 ② 완료상					
			④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㉔ 피동 표현	① 파생적 피동문 ② 통사적 피동문		문법 46	181		
				㉔ 사동 표현	① 파생적 사동문 ② 통사적 사동문		문법 47	181		
			⑤ 부정 표현	㉔ '안' 부정문	① 긴 부정문 ② 짧은 부정문		문법 48	188		
				㉔ '못' 부정문	① 긴 부정문 ② 짧은 부정문					

2-4. 담화 (화용론)	2-4-1. 담화의 개념	① 발화	㉠ 직접 발화 ㉡ 간접 발화	문법 49	194
		② 담화의 구성요소	㉠ 화자 / 청자 ㉡ 발화(내용) ㉢ 장면(맥락)		
	2-4-2. 담화의 종류 및 기능	① 정보 제공 담화 ② 호소 담화 ③ 약속 담화 ④ 사고 담화 ⑤ 선언 담화		문법 50	197
	2-4-3. 매체 담화	① 신문 매체 ② 방송 매체 ③ 인터넷 매체		문법 51	198
2-5. 의미 (의미론)	2-5-1. 의미의 종류	① 개념적 의미	㉠ 다의어 ㉡ 동음이의어	문법 52	206
		② 내포적 의미 ③ 사회적 의미 ④ 정서적 의미 ⑤ 반사적 의미 ⑥ 연어적 의미 ⑦ 주제적 의미			
	2-5-2. 의미의 성분 분석			문법 53	213
	2-5-3. 단어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상하 관계 ④ 부분-전체 관계		문법 54	215
	2-5-4. 문장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중의적 문장과 모호한 문장 ④ 통일성과 응집성		문법 55	217

[2] 국어와 삶

1. 일상 언어 / 2. 매체 언어 / 3. 사회 언어 / 4. 학술 언어

문법 56

234

〈문법 2〉

[1] 국어와 규범

1. 정확한 발음	1-1. 표준 발음과 표준어	① 표준 발음법 ② 표준어	문법 57	240
2. 올바른 단어 사용	2-1. 한글 맞춤법		문법 58	251
	2-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① 외래어 표기법 ② 로마자 표기법	문법 59	256
3. 정확한 문장 표현	3-1. 정확하지 않은 문장의 구분		문법 60	276
	3-2. 자연스러운 문장의 요건	① 문법성 ② 적절성		
4. 효과적인 담화 구성	4-1. 표준 화법과 언어 예절		문법 61	290

[2] 국어와 열

1. 국어의 변천	1-1. 국어가 걸어온 길	① 국어의 계통	㉠ 국어의 형성 ㉡ 국어사의 시대구분	문법 62	294	
		① 음운의 변천	㉠ 자음의 변천 ㉡ 모음의 변천 ㉢ 성조	문법 63	296	
	1-2. 국어의 변천	② 표기·문법의 변천	㉠ 고대 국어 ㉡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문법 64	298	
		③ 어휘의 변천		문법 65	304	
	1-3.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① 한글의 창제	㉠ 훈민정음 제자원리	① 초성 제자원리 ② 중성 제자원리 ③ 종성 제자원리	문법 66	315
	1-4. 선인들의 국어 생활			문법 67	321	
2. 국어의 미래	2-1. 통일 시대의 국어 / 2-2. 세계 속의 국어 / 2-3. 국어와 인접 분야		문법 68	323		

부록 : 한글맞춤법 및 표준발음법

327

교재 후기

382

빠른 정답

별책

01

해설

별책

19



열공 Tip! - 언어의 창조성과 언어의 역사성

'창조성'이란 어감 때문인지 단어의 생성을 '창조성'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의 생성은 '역사성'(없던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창조성'은 한정된 단어 내에서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내는 언어의 특성(기존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⑤ 언어의 창조성 중요도 | 🌟🌟🌟🌟🌟

: 한정된 단어로 무한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할 점은, 없던 단어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단어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예) 나는 낮에 밥을 먹는다. 아이는 잠을 잔다. → 나는 낮에 잠을 잔다.

이처럼 두 문장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⑥ 언어의 사회성 중요도 | 🌟🌟🌟🌟🌟

: 언어는 사회적 약속체계이므로, 개인이 사회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언어를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지우개'를 '김치'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지우개'를 '김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⑦ 언어의 역사성 중요도 | 🌟🌟🌟🌟🌟

: 사회가 변하듯, 언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크게,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생성은 없던 개념을 서술할 새로운 단어를 말하며, 발전은 의미 변화, 소멸은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방송(放送)은 현재는 방영을 의미하지만, 과거에는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주던 일'을 의미했어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죠.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비문학(언어)

인간은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A] 이른바 사은유(死隱喩)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꿰는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B]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하여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열공 Tip! - 소리의 특징

소리의 특징은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이해해도 돼. 이걸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들이니까. ^^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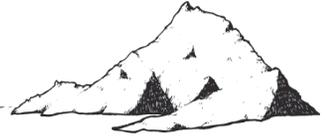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수능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개념 이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음운 현상들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인 개념이라고 보면 되지.

만약 이 설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 알았지? ^^ 수능 끝나고 하면 다 소용없으니, www.facebook.com/yuhyunju.teacher나 cafe.naver.com/youteacher로 써서 와도 되고, 검색엔진에 '유현주'만 써도 돼. 선생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 ^_^ (사진은 실물과 다르니 이름이 같다 싶으면 선생님 맞으니까 놀라지 말고^^)

- ㉠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 ㉡ 울림소리 (성대 울림)
 - ㉢ 안울림소리 (성대 안울림)

- ㉣ 조음 방법에 따라
 - ㉡ 파열음 : 혀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 마찰음 : 입 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 파찰음 :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 처음에는 파열음, 나중에는 마찰음의 순서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 ㉡ 비음 : 목젖을 내려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유음 :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 ㉤ 조음 위치에 따라
 - ㉡ 입술소리 :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혀끝소리 : 혀 끝과 윗잇몸이 맞닿아 나는 소리
 - ㉣ 센입천장소리 : 혀바닥과 경구개, 즉 굳은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여린입천장소리 :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 ㉣ 목청소리 : 성문, 즉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2-1. 음운	2-1-1. 음소	① 자음	② 모음	문법 2~3
------------	--------------	------	------	-----------

② 모음(단모음 10개 + 이중 모음 11개)

: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조음 기관에서 기류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만들어지는 소리. 모음은 **음절의 핵**을 이룹니다.

혀의 앞뒤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ㅓ
중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	ㅙ		ㅛ	

[단모음 체계]

열공 Tip! - 음절의 핵

'음절의 핵'이란 말은 모음이 그만큼 음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야. 자음이 없는 음절은 있을 수 있지만, 모음이 없는 음절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말에선 모음의 개수가 음절의 개수와 일치한다고 보면 돼.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ㅖ ㅙ ㅛ ㅜ ㅠ ㅡ ㅖ ㅙ ㅛ ㅜ ㅠ ㅡ ㅖ ㅙ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열공 Tip! - 모음

모음은 단모음, 이중 모음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 단, 이 때 '반모음'은 이중 모음에 포함되는 개념이란 것을 명심할 것! 자꾸 따로따로 구분하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주의하자!!

㉠ 단모음

: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그 발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소리를 갖는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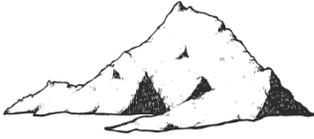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ㅖ ㅙ'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ㅕ, ㅛ'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



실전문제유형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었다.
- ②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 ④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41.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②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4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 [고궁이 크다]
B : [koguŋikhida]

-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군.
-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군.
-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군.
-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군.
-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군.

2008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ㅊ)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ㅑ, ㅓ, ㅕ)은 4도, 중모음(ㅕ, ㅖ, ㅗ, ㅛ)은 5도, 저모음(ㅘ, ㅚ)은 6도가 된다.



46. <보기>는 ㉠과 같이 한글을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기했음직한 의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한글은 다른 문자와 비교할 때 어떤 점이 특이한가?	음, 자세히 살펴보니, ‘ㄱ’과 ‘ㅋ’, ‘ㄷ’과 ‘ㅌ’처럼 서로 닮은 글자들이 많이 있네. …… ㉠
↓	
자형이 소리의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ㄱ→ㅋ’처럼 원래의 글자에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는 원래 글자와 소리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 위치가 같군. …… ㉡
↓	
가획이 음운보다 더 작은 단위인 자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음, 그리고 보니 가획이 ‘저셈’과 같은 음운자질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네. …… ㉢
↓	
다른 문자 중에서 자형이 자질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있을까?	‘木’과 ‘林’, ‘日’과 ‘目’을 보니, 한자도 글자 모양의 차이가 자질의 차이를 반영하는구나. …… ㉣
↓	
자형이 자질을 반영하는 문자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필요한가?	결국 문자들의 차이를 잘 구별해 주려면 별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좋겠어. …… ㉤

4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1점]

< 보 기 >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 | | | |
|--------------|--------------|--------------|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모음의 변동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9월 A형 11번]
음운의 변동

[2014학년도 6월 A형 11번]
음절 끝소리 규칙

[2011학년도 9월 12번]
표준 발음의 원리

열공 Tip! - 음운의 변동

‘음운의 변동’은 ‘음운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 다섯 개 보이지?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개념들은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까!

2015학년도 수능 B형 오답률 1위(73%)였던 11번 문제도 이 원리만 알았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5위였던 13번도 음운론 부분이었고 ㅠㅠ

보통 A형에서는 1문제가 출제되고, B형에서는 최대 2문제까지도 출제되고, 음운의 변동 전반에 대해 골고루 통합해서 묻는 문제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각각의 문법 현상들을 이해한 후 그 현상들이 포함되는 변동의 범주를 분류해서 공부해야해.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제 조금 긴장하고, 집중!!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5
			㉡ 음운의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두음 법칙	① 지음 동화	㉤ 경음화		㉦ 구개음화		
	㉣ 시옷소리 현상	② 모음 동화	㉧ 전설모음화			

2-1-3. 음운의 변동 중요도 | ★★★★★

: 한 음운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한 환경에서 연결되는 말에 따라 소리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개, ‘발음의 편의’ 또는 ‘표현의 명확성’을 목표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표를 염두하며 개념을 정리하면 좀 더 쉽게 개념을 체계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2015학년도 수능 B형의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11번 문제의 기본 원리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므로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음운의 변동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봅시다!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6
			㉡ 음운의 동화	① 자음 동화	㉢ 비음화 ㉣ 유음화 ㉤ 경음화 ㉥ 구개음화 ㉦ 전설모음화	
			㉢ 두음 법칙			
			㉣ 사잇소리 현상 (사첨가)			

열공 Tip! - 구개음화

구개음화 현상은 경구개음(센입천장 소리)이 아닌 'ㄷ, ㅌ'이 'ㅣ' 모음이나, 반모음 'ㅚ(ㅣ)'를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해, 즉, 다른 동화 현상과 달리 자음과 모음의 충돌이아. 앞 자음은 실질 형태소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ㄷ, ㅌ'이 'ㅣ' 모음을 만나면 혀끝소리부터 여린입천장소리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ㄷ, ㅌ'을 'ㅈ, ㅊ'으로 이동하게 되면 혀끝소리만큼 이동거리가 절약되어 발음이 훨씬 수월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구개음화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구개음이 아닌 음운'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거지.

㉥ **구개음화** [口(입-구)蓋(천장-개)音(소리-음)化(변-화)]

[발음의 편의를 위해 발생]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ㅚ, ㅟ, ㅞ, ㅟ, ㅠ, ㅡ)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굳이 → [구디 → 구지], 굳히다 → [구티다 → 구치다]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센입천장 소리	여린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ㅃ		ㅍ	
		된소리	ㅃ	ㅆ		ㅍ	
		거센소리	ㅍ	ㅊ		ㅋ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예사소리		(절약)	ㅈ		
파찰음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ㅊ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구개음화의 원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17항》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굳이[구지] 받이[바치]

[붙임] 'ㄷ'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2-1. 음운	2-1-3. 음운의 변동	① 음운의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문법 8
			㉡ 음운의 동화	
			㉠ 자음 동화	㉢ 비음화
			㉡ 모음 동화	㉣ 유음화
			㉢ 두음 법칙	㉤ 경음화
			㉣ 사잇소리 현상 (s첨가)	㉥ 구개음화
				㉦ 전설모음화

열공 Tip! - 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은 크게 's첨가'와 'ㄴ첨가'가 있어. 그 중 's첨가'는 교체에 해당하고, 'ㄴ첨가'는 첨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을 정확하게 나눠서 기억해야 해 ^^

학교문법에선 's첨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2014, 2015 EBS 교재의 개념 안에선 's첨가'란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기에 개념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특히, 표준발음법 제30항 제7장 소리의 '첨가' 부분에 's첨가' 발음 현상이 나와서 헷갈릴 수 있지만, 현행 학교문법에선 '교체'로 보고 있으니 꼭꼭 확인!!

㉣ 사잇소리 현상 중요도 | ★★☆☆☆

: 고유어 + 고유어의 결합이나 고유어 + 한자어의 결합 등 고유어와의 복합어 결합을 나타내기 위한 현상.

이 때,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난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하고,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소리의 첨가로 복합어임을 나타냅니다.

① 's'첨가 (발음법) / 사이시옷 (표기법)

: 두 개의 단어나 형태소가 합성 명사가 될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유성음(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뒷말의 첫 자음이 된소리로 발음.

예) 배 + 사공 → 뱃사공[배싸공/뽀싸공](둘 다 맞음),
밤 + 길 → 밤길[밤길]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ㄷ(ㄷ, ㅌ, ㄷ, ㅌ), ㅃ(ㅃ,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ㅃ,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꺄] 뽀대다[뽀대다] 곱돌[곱뽀]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ㅃ, ㅍ'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뽀자] 산-바람[산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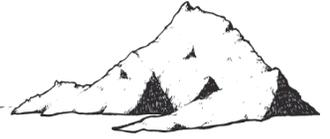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표준 발음법 제6장 된소리되기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1. 'ㄱ, ㄷ, ㅃ, ㅍ'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넷가[내:까/넛:까], 셋길[새:길/썸:길]

- 표준 발음법 제7장 소리의 첨가



《제30항》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2.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콧날[콧날→콘날] 아랫니[아랫니→아래니]

3. 사이시옷 뒤에 ‘이’소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니]으로 발음한다.

베갯잇[베갯잇→베갯넝] 깃잇[깃잇→깃넝]

-표준 발음법 제7장 소리의 첨가

② ‘반모음’첨가

: 용언 어간 뒤에서 반모음 ‘y’가 첨가되는 현상

예)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관련 한글 맞춤법 및 표준 발음법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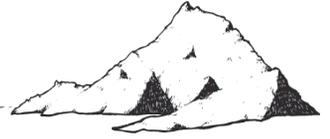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 **합성어의 형성과 사이소리 현상**

: 합성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는데, 크게 경음화와 ㄴ-첨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① 경음화 (ㄱ첨가)

: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안울림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예)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② ㄴ-첨가

: ㄴ-첨가는 ‘음운의 변동’ 현상에서 언급했던 개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실제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는 사이시옷 조항에서 사이시옷이 적힌 단어들을 ‘ㄴ’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는 사이시옷 표기까지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사이시옷 표기까지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 맨입[맨닙], 담요[담:노]

열공 Tip! - 사이소리 vs. 사이시옷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의 개념을 혼동하는 학생들이 많아, 실제로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개념이기도 해. 사이소리는 ‘경음화’, ‘ㄴ-첨가’로 넓게 이해하면 되고, 사이시옷은 그 중 결합하는 단어 중 앞에 나온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을 때 표기에 반영되는 ‘ㅅ’을 말해. 이 때, 사이시옷은 고유어와의 합성어의 경우에 표기된다는 제한적 특성도 있지. 예를 들어, 컷병, 나룻배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반출되진 않지만 중요한 개념이니 잘 정리해 두자! 힘내렴. 잘하고 있어!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2.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 ② 돌아서다
-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 ⑤ 오르내리다



2-2. 단어(형태론)	2-2-2. 단어	② 단어 형성 방식	㉠ 단일어		문법 23
			㉠ 복합어	①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② 파생어 ㉢ 비통사적 합성어 ㉣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 ㉤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 파생어의 형성 방법 》

- ㉡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 : 파생 접사가 어근 앞에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
 예) 만- ; 만팔<명사를 어근으로 하는 접두파생법>
 되- ; 되감다<용언을 어근으로 하는 접두파생법>
 덧- ; 덧버선<둘 이상의 품사를 어근으로 하는 접두파생법>

열공 Tip! -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별

접두사와 관형사는 위치상으로 모두 체언 앞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갈 것!

☆ 접두사와 관형사 구별하기

- ① 분포상의 제약 : 접두사는 분포상의 제약이 심하지만 관형사는 분포상의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예) 관형사 ‘새’ → 새 감자, 새 곡식, 새 가방, 새 책 (모두 가능)
 접두사 ‘햇’ → 햇감자(○), 햇곡식(○), 햇가방(×), 햇책(×)

- ㉣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 : 파생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방식
 예) -이 ; 놀이, 구이<명사 형성 파생법>
 -기 ; 달리기<명사 형성 파생법>
 -스럽- ; 어른스럽다<형용사 형성 파생법>
 -하- ; 사랑하다<동사 형성 파생법>
 -이 ; 깨끗이, 날이<부사 형성 파생법>

열공 Tip! - 파생접미사와

굴절접미사(어미) 구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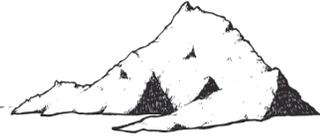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혼동하는 개념이고,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기에 좋은 개념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 원리를 이해하면 내용 이해도 수월하니, 긴장하지 말고 집중 또 집중!



☆ 파생접미사와 어미(=굴절접미사) 구별하기

중요도 | ★★★★★

- ① 새로운 단어의 형성 : 파생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어미는 그럴 수 없다.
 예) 파생접미사 ‘-이’ : 높이, 놀이, 길이, ...
 어미 : 높다, 높게, 높지, 높아
- ② 결합과정의 제약성 : 파생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고, 어미는 어간과 결합합니다. 이 때, 파생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제약이 심하지만 어미가 결합할 때는 거의 제약이 없어요.
 예) 파생접미사 ‘-이’ : 높이(○), 놀이(○), 길이(○), 보이(×), 믿어(×)
 어미 ‘-아/어’ : 높아(○), 놀아(○), 길어(○), 보아(○), 믿어(○)
- ③ 어근/어간의 영향 : 파생접미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지만, 어미는 어간의 품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 파생접미사 ‘-이’ : 높다(형용사) → 높이(명사)
 어미 ‘-아/어’ : 높다(형용사) → 높아(형용사)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3.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 < 보 기 > —

접미사 ‘-답-’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¹-’, ‘-답²-’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1. ‘-답¹-’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²-’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2. ‘-답¹-’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싸움에서 이긴 장군]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²-’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3. ‘-답¹-’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²-’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
|-------------------|-------------------|
| -답 ¹ - | -답 ²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3. <보기>의 ‘뜨개질’과 단어의 구조가 동일한 것은?

— < 보 기 > —

‘뜨개질’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근 + 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동일한 층위에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즉, 어근 ‘뜨-’에 접미사 ‘-개’가 붙어 먼저 ‘뜨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질’이 붙어 ‘뜨개질’이 된 것이다. 따라서 ‘뜨개질’은 ‘(어근+접미사) + 접미사’의 구조로 된 파생어이다.

- ① 싸움꾼 ② 군것질 ③ 놀이터
- ④ 병마개 ⑤ 미단이



2-2 단어(형태론)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수사	문법 24~30	
			㉡ 수식언	① 관형사		㉠ 성상 관형사 ㉡ 지시 관형사 ㉢ 수 관형사
				②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 관계언	①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② 가변어	㉣ 독립언	① 감탄사		
			㉤ 용언	① 동사 ② 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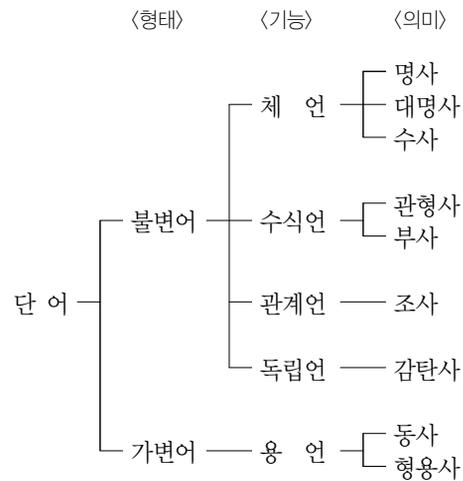
열공 Tip! - 품사

품사 역시 **높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는** 파트야. **이전 수능과 현행 수능**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을 외우는 것에서 나아가 각 개념들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

기본적으로 '형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개념을 잡고, 그 다음 '기능', '의미'를 더해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

2-2-3. 품사 중요도 | ★★★★★

- : 공통된 문법적 성질을 지닌 단어끼리 모아 놓은 단어의 갈래.
- :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



[우리말의 품사 분류]



열공 Tip! - 의존 명사

- ① 반드시 앞에 꾸며주는 관형어가 존재해야 함.
 - 예) 수가 없었다. (×)
나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 (○)
- ② 의존 명사 뒤에는 조사가 오고, 이때 조사는 제한되기도 함.
 - 〈형식성 의존 명사〉
: 실질적 의미가 없거나 허박한 의존 명사
 - 주어성 의존 명사 : 지, 수, 리, 나, 위, 덕 등
 - 서술성 의존 명사 : 뿐, 터, 때문, 노릇, 마련, 셈 등
 - 부사성 의존 명사 : 김, 만, 뻔, 척, 망정 등
 - 보편성 의존 명사 : 것, 데, 바, 이 따위 등
 - 〈단위성 의존 명사〉
: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 예) 자루, 명, 문, 마리, 켈레, 채, 분, 벌, 척 등
- ③ 관형사형 어미도 제한되기도 합니다.
 - 예) 내일은 비가 [올(○)/온(×)/오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열공 Tip! - '대명사'의 출제 포인트

'대명사'는 개념 그 자체로는 어렵지 않지만, 중복 쓰임이 가능해, 예를 들어, 1인칭이면서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쓰인다거나 2인칭이면서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지. 그러므로,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두는 것이 확실하게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 》 중요도 | ★★★☆☆

: 의존 명사는 자립 명사와 달리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자립성이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의존 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띄어쓰기예요.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고, 앞에 띄어쓰기가 사용되었다면 이것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는지 찾아보면 됩니다. 있다면, 확실히 의존 명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반드시 앞에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존재해야 하므로 문장의 첫 머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 내가 그 사실을 안 이상 도저히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다.

② 대명사(代)(대신하다-대名詞)

: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말로, 선행 개념을 다시 한 번 지시할 때 쓰는 품사입니다. 그러나, 같은 체언인 명사가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것에 반해 대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인칭 대명사

㉠ 1인칭 대명사 (높임에 따라)

- 평서형 : 나(단수), 우리(복수)
- 자신을 낮춤 : 저(단수), 저희(복수)

㉠ 2인칭 대명사 (상대높임에 따라)

- 아주 높임 : 주로 '님'을 붙여 실현됨. 선생님, 스승님 등
- 예사 높임 : 당신, 임자, 그대, 선생(단수) / 여러분(복수) 등
- 예사 낮춤 : 자네 등
- 아주 낮춤 : 너(단수), 너희(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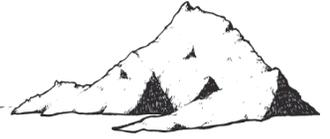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당신'의 쓰임

: 청자를 가리킬 때,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거나 가깝지 않은 동년배를 가리킬 때 쓰이는 경우에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예) 2인칭 '당신' : 이 일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 3인칭 '당신' : 할머니는 항상 당신의 꽃밭을 제 손으로 직접 가꾸셨다.

㉠ 3인칭 대명사 (상대높임에 따라) 중요도 | ★★★★★

- 높임 : 이이, 그이, 저이, 이분, 그분, 저분, 당신 등
- 평서형 : 그, 저(단수) / 이들, 그들, 저들(복수) 등
- 낮춤 : 이자, 그자, 저자, 개, 그애 등



2-2 단어(형태론)	2-2-3. 품사	① 불변어	㉠ 체언	① 명사 ② 대명사 ③ 수사	문법 31-32
			㉡ 수식언	① 관형사	
㉢ 관계언	② 부사			㉡ 성분 부사 ㉢ 문장 부사	
	㉣ 독립언		① 조사	㉡ 격조사 ㉢ 접속 조사 ㉣ 보조사	
② 가변어			㉣ 용언	① 감탄사 ① 동사 ② 형용사	

㉣ **용언**(用言(활용-용)言) :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

① **동사**(動詞(움직이다-동詞)) :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

- ㉡ 자동사 :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
예) 앉다, 서다, 돌다, 남다, 웃다, 울다, ...
- ㉢ 타동사 :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치는 동사로, 항상 목적어를 취합니다. (목적어는 생략되기도 함.)
예) 막다, 밟다, 깎다, 넣다, 주다, ...

② **형용사**(形詞(모양-형)容(얼굴-용)詞)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

- ㉡ 성상 형용사 :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냄
예) 아름답다, 착하다, 푸르다, ...
- ㉢ 지시 형용사 : 지시어의 한 갈래로, 성상 형용사를 가리킵니다.
예)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

열공 Tip! - 용언

용언은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야.
흔히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하잖아. 실제 문장에서도 용언은 우리말에서 상당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거든.
보통, 수능에서도 '용언'의 개념, '활용', '어간', '어미', '어미 체계' 등 모든 개념들이 세세하게 다뤄지니까, 중요하게 봐야해.
심호흡하고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



열공 Tip! - 타동사

주어, 목적어 이외에 필수적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 타동사도 있으니까 예를 외우진 말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 ^^



열공 Tip! - 어말 어미

'용언의 활용'은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선어말 어미에 비해 '어말 어미'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모두 중요하게 봐야하니 집중합시다!



열공 Tip! - 종속적 연결 어미와 부사형 전성 어미

'-게, -아서' 등의 '종속적 연결어미'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어. '부사형 전성 어미'와 구분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현행 학교 문법(2002년 3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를 원칙으로 하고, '부사형 전성 어미'를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렴.

열공 Tip! - 보조 용언의 개념

용언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해서 자립적으로 쓰이지만, 의존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먹어 버리다'는 용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왔는데 '먹다'라는 용언이 중심 의미를 나타내니까 '보용언'이 되고, '버리다'는 보조적 의미를 나타내니까 '보조 용언'이 되잖아. 단, '보조 용언'만 쓰여서는 문장의 본래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고. 또, '보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끼어 들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고!

열공 Tip! - '-형'

'형'이란 단어는 반드시 중요하게 봐야 해. '명사'는 실제 '명사'라는 품사를 지칭하지만, '명사형 어미'는 명사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말 그대로 그런 형태만을 띄고 있는 어미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품사는 '용언'에 해당하는 동사, 형용사 중 하나를 말하는 거야.

2-2 단어(형태론)	2-2-3. 품사	㉔ 가변어	㉓-1. 용언의 활용	① 선어말 어미		문법 34-36	
				㉓ 어말 어미	㉗ 종결 어미		
					㉘-1. 연결 어미	㉘ 대등적 연결 어미 ㉙ 종속적 연결 어미 ㉚ 보조적 연결 어미	
					㉘-2. 전성 어미	㉛ 명사형 전성 어미 ㉜ 관형사형 전성 어미 ㉝ 부사형 전성 어미	

㉓ 어말 어미 :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상대높임법을 결정하고,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㉗ 종결 어미 : 문장을 종결시키는 어미로 종결형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예) 평서형 <-다>, 의문형 <-느냐/-냐>, 감탄형 <-구나>, 명령형 <-어라>, 청유형 <-자>

㉘ 비종결 어미

㉘-1. 연결 어미 : 문장을 종결하지 못하고, 뒤따르는 문장이나 용언을 연결시키는 어미.

㉘ a) 대등적 연결 어미 <-고, -며, ...>
: 앞 문장과 뒤따르는 문장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시켜 주는 어미.
예) 하늘은 높고, 땅은 푸르다.

→ ㉘ b) 종속적 연결 어미 <-니, -어서, -게, ...>
: 앞 문장과 뒤따르는 문장을 주종관계로 연결하는 어미. 연결어미로 인해 앞 문장은 뒷 문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봄이 오니, 꽃이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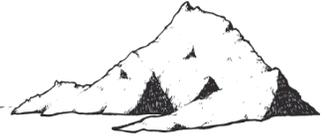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㉘ c) 보조적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
: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어미.
예) 민수는 공부를 하고 있다.

㉘-2. 전성 어미 : 문장의 서술어가 되면서 용언으로써의 자격을 바꾸어 임시로 다른 품사처럼 쓰이는 어미.

→ ㉘ a) 명사형 전성 어미 <-고, -기>
: 한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 체언과 같은 성분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예) 그 대학은 합격하기가 너무 어렵다.

b)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 -ㄹ, -는>
: 한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어 관형어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예) 골목에서 항상 기다리던 그 아이가 자꾸 그림다.

c) 부사형 전성 어미 <-고, -서-, -게, -아서>
: 한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 부사어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
예) 그녀는 예쁘게 웃었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12.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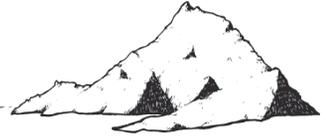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 보 기 > —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었더라.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 감기 걸렸다며?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겼어.
-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빳어.
-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잠어.



㉓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중요도 | ★★☆☆☆

㉓ 규칙 활용 :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과정, 즉 활용 중 어간, 어미가 유지되거나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활동

㉓ 활용시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모습으로 유지

㉓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X)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예) 높(다) + 아 → 높아, 높(다) + 고 → 높고

㉓ 용언의 어간 모음 ‘으’ 탈락

: 어미 ‘-아/어’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쓰고, 써

㉓ 용언의 어간 ‘르’ 탈락

: 어간 끝받침 ‘르’이 어미의 첫소리 ‘ㄴ, ㄹ, ㅁ’ 및 ‘-오, -르’앞에서 줄어드는 경우 준대로 적습니다.

예) 울다, 울고, 우는, 우느냐, 읍니다

㉓ 활용시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지만 규칙적으로 볼 수 있는 예

㉓ 모음 조화

: 어미 ‘-어라/아라, -어(서)/아(서), -었/았-’은 앞에 오는 용언 어간의 모음이 ‘아, 오’일 때는 ‘-아라, -아(서), -았-’, ‘아, 오’를 제외한 나머지 모음일 때는 ‘-어라, -어(서), -었-’이 선택됩니다.

예) 먹어라, 먹었다 / 보아라, 보았다

㉓ 매개 모음 ‘으’ 첨가

: 용언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면 ‘-은, -을, -으오, -으시, -음’ 결합

예) 잡은, 잡을, 잡으오, 잡으시고, 잡음..

: 용언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면 ‘-ㄴ, -르, -오, -시-, -ㅁ’ 결합

예) 간, 갈, 가오, 가시고, 감..

㉓ 불규칙 활용 :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활용할 때 규칙적 활용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㉓ 어간의 불규칙

㉓ ‘ㅅ’ 불규칙

: 어간의 ‘ㅅ’이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짓+어→지어,

잇+어→이어

㉓ ‘ㄷ’ 불규칙

: 어간의 ‘ㄷ’이 모음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예) 묻(問)+어→물어,

듣+어→들어

열공 Tip! - 활용의 예

수능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예를 묻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었지만, 그에 따른 예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

보통 출제될 경우, 예가 주어지고 각각 그에 해당하는 지를 묻는 식으로 출제되니까 긴장하지 말고 보자. ^^



열공 Tip! - 평서형 어미의 종류

우리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항상 종결 어미에 높임법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종결 표현에 따른 종결 어미는 높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이 부분은 '높임 표현'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할게. ^^

열공 Tip! -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의 차이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는 차이가 있어. '적절한 답을 빈 칸에 쓰라'는 간접 명령문이고, '빈 칸에 써라'는 직접 명령문에 해당하는 거야. ^^

2-3. 문장(통사론)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 평서문	문법 43	
			㉡ 명령문		① 직접 명령문
			㉢ 청유문		② 간접 명령문
			㉣ 의문문		① 판정 의문문
			㉤ 감탄문		② 설명 의문문
			③ 수사 의문문		

2-3-3. 국어 문법 범주

① 종결 표현

: 국어의 문장은 종결 표현에 의해 5가지(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감탄형)로 나뉩니다. 화자는 종결 어미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청자에게 전달하죠.

㉠ 평서문

: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 평서형 종결 어미는 주로 '-다'로 실현됩니다.

예) 그녀는 그를 매우 사랑했다.

㉡ 명령문

: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의 실현을 요구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문장. 행동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명령문의 종류

: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를 직접 보고 명령하는 상호적 발화 상황에서의 명령을 **통보하**는 직접 명령문, 청자가 없을 때 간접적으로 지시를 내려 일방적으로 명령을 통보하는 간접 명령문으로 나뉩니다.

① 직접 명령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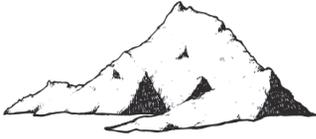
: 화자가 청자를 직접 보고 명령하는 상호 의사 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명령문을 말한다.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라, -어라, -세요, -시지요' 등의 다양한 종결 어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집에 가**라**/ 집에 가**거라**/ 집에 가**세요**/ 집에 가**시지요**.

② 간접 명령문

: 화자가 청자를 직접 볼 수 없는 일방적 발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문을 말합니다.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으)라'의 종결 어미로만 실현돼요.

예) 다음 글을 읽고 적절한 답을 빈 칸에 **쓰라**.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인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밥’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인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밥’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에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오체’나 ‘해요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더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석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열공 Tip! - 시제

기본적으로 시제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언급한 것처럼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데 이 개념은 수능에는 출제된 적이 없고, EBS 교재에 수록되었던 고난이도 지문 중 하나로 출제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다 잡힌 뒤에 고난이도 개념을 연습할 때 보면 될 내용이야.

특히, 상대 시제의 경우 많이들 혼동하는 개념인데, 안은 문장의 영향으로 안긴 문장의 시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안은 문장과 안긴 문장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야.

2-3. 문장(통사론)	2-3-3. 국어 문법 범주	③ 시간 표현	㉠ 시제	① 과거 시제 ② 현재 시제 ③ 미래 시제	문법 45
			㉡ 상	① 진행상 ② 완료상	

③ 시간 표현 중요도 | ★★☆☆☆

㉠ 시제

: 시제는 연속적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화자가 발화시(화자가 특정한 문장을 발화하는 시간으로써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문장으로 표현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실제 일어난 시간)의 앞뒤를 제한하는 문법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시제를 절대적 시제라고 하고, 주 문장의 사건시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시제를 상대적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엔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개념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시제의 종류

① 과거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즉, 말하고 있는 시간(발화시)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사건시)이 더 앞에 존재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죠.

《실현방법》

-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었었-/-였었-'
예) 수빈이는 어제 해물탕을 먹었다.
- ㉡ 관형사형 어미 ⇨ 동사 '-(으)ㄴ',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던'
예) 믿지는 지금까지 읽은 책이 어마어마하다.
- ㉢ 시간 부사어
예) 어제 나는 드디어 그 영화를 보았다.
- ㉣ 회상 선어말어미 '-더-'
예) 며칠 전에 명승이가 춤을 추더구나.



2014학년도 3월 학력평가 A형

13.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3점]

〈 보 기 〉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었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갈-리다¹ [동]

① ‘갈다¹ ①’의 피동사.

¶ 밧돌에 콩이 갈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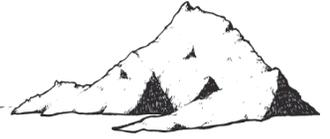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② ‘갈다¹ ②’의 피동사.

¶ 비루에 떡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동] ‘갈다²’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¹’을 보니, ‘갈다¹’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¹’과 ‘갈-리다²’를 보니, ‘갈다¹’과 ‘갈다²’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¹’을 보니, ‘갈-리다¹’은 ‘갈다¹’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¹ ①’을 고려할 때, ‘갈다¹ ①’의 용례로 ‘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²’를 고려할 때, ‘갈다²’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2005학년도 수능

12. <보기>의 ㉠~㉣을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말다툼하는 친구들을 말린다고 ㉠ 끼어들었다가 말을 잘못해서 되레 친구들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 틀림없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먼저 “아무려면 내가 너를 ㉢ 미워서 그랬겠니?” 라고 말 한마디를 건네 친구의 오해가 ㉣ 풀려지도록 해 보자.
㉤ 물론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말을 가려 쓰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은 「끼다」와 「들다」가 결합된 말이므로 「끼어들었다가」로 바꿔야겠어.
- ② ㉡은 문장 안에서 호응이 되지 않으니 「틀림없이」를 빼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빚다」가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미워서」로 바꿔야겠어.
- ④ ㉣은 피동 표현이 두 번 사용되었으니 「풀려지도록」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 ⑤ ㉤은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런데도」로 바꿔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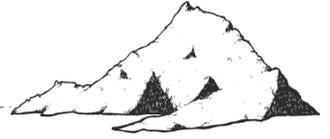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 < 보 기 > —

부르다¹ ㉡ ㉡ 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부르다² ㉢ ㉢ ④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분다¹ ㉣~ ㉣ ③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다² ㉣ ㉣ ⑤ ~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렸다.
-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 매주를 쭈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 B형 공통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 [···을]

-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라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 [···을] 별에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은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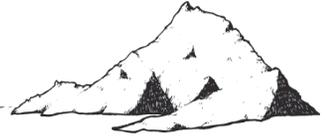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갈-리다¹ ㉠

- ㉠ '갈다¹ ㉡'의 피동사.
 - ㉢ 밧돌에 콩이 갈리다.
 - ㉣ '갈다¹ ㉢'의 피동사.
 - ㉤ 벼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 '갈다²'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¹'을 보니, '갈다¹'은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¹'과 '갈-리다²'를 보니, '갈다¹'과 '갈다²'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¹'을 보니, '갈-리다¹'은 '갈다¹'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¹ ㉠'을 고려할 때, '갈다¹ ㉡'의 용례로 '밧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²'를 고려할 때, '갈다²'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2-5. 의미(의미론)	2-5-3. 단어의 관계	① 유의 관계 ② 반의 관계 ③ 상하 관계 ④ 부분 - 전체 관계	문법 54
-----------------	------------------	---	----------

2-5-3. 단어의 관계 중요도 | ★★★★★

① **유의 관계**

: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 유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①-1. 유의어 파악 방법

① 계열 관계(수직 관계)

: 단어를 대치해 보는 것으로, 대치가 가능한 단어들을 유의어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예)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하다. 약을 드시다. 약을 잡수시다.

② 결합 관계(수평 관계)

: 유의어들 사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계열 관계를 파악한 다음,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해요.

예) 공을 **잡다** / **쥐다**

공을 잡다 (○) / 공을 쥐다 (○)

도둑을 잡다 (○) / 도둑을 쥐다 (×)

② **반의 관계**

: 단어들이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 반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의어들은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의미 자질이 있으면서 한 가지의 의미 자질만 달라야 하죠. 대개, 이 부분을 **□**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의 관계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소년 [+생물], [+동물], [+인간], [+비성인], **[+남성]**

소녀 [+생물], [+동물], [+인간], [+비성인], **[-남성]**

∴ 소년과 소녀는 반의 관계이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의미 자질이 다르게 되면, 반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예) 소년 [+생물], [+동물], [+인간], [+비성인], [+남성]

할머니 [+생물], [+동물], [+인간], **[-비성인],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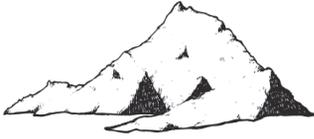
∴ 소년과 할머니는 반의 관계가 아니다.

열공 Tip! -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

유의 관계와 반의 관계는 쉬운 개념이지만, 막상 개념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건 기준이 또렷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념만 넣었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는 모습인데, 괜찮아. 구분하는 방법 알려줄게. ^^
유의 관계를 파악할 때는 계열과 결합 관계를 생각해 보고, 반의 관계를 파악할 땐 나머지 공통 의미 자질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썰어서 둘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선생님 믿지? ^^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 '나의 상처는 풀이지만 너의 상처는 꽃이기를.'
선생님의 작은 노력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너의 날들에 가닿을 수 있기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해 보자. 힘내렴 ^^





를 ‘현아의’ 바로 뒤에 찍어주면 ‘현아’의 손이 예쁜 것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② [중의적 문장 - 비교 대상의 중의성]

: 문장 표현 가운데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석상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 강현이는 형보다 운아를 좋아한다.

(강현이가 ‘형’과 ‘운아’ 중에서 ‘운아’를 좋아한다는 것인지, 강현이와 형이 모두 ‘운아’를 좋아하는데 형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운아’를 좋아하는 마음이 큰 것인지가 모호한 표현입니다.)

▶ 중의법 해소 방법 : 강현이는 **형과 운아 중에서** 운아를 더 좋아한다.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나눴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예 ③ [중의적 문장 - 병렬 구문의 중의성]

: 병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 조사 ‘과/외’는 문장 내에서 잘못 쓰일 경우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민식이는 수학과 국어책 두 권을 샀다.

(민식이가 수학과 국어책 1권을 산 것인지, 수학과 국어책 2권을 산 것인지, 수학과 국어책 2권을 산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문장이 아닙니다.)

▶ 중의법 해소 방법 : 민식이는 수학과 국어책 **한 권과 국어책 두 권**을 샀다.

(병렬 구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디까지가 병렬로 묶이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좋은 문장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④ [중의적 문장 - 부정문의 중의성]

: 평소에도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표현으로, 이 역시 부정 표현이 어디까지 꾸며주는 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1반 학생들이 다 안 왔다.

(1반 학생들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인지, 일부 학생만 오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표현입니다.)

▶ 중의법 해소 방법 : 1반 학생들이 모두 다 안 왔다.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였어요.)

예 ⑤ [모호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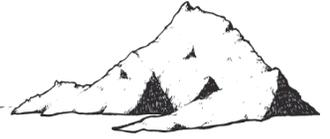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중의적이지 않아도 뜻이 애매한 말을 쓰면 좋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예 나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내가 어떤 면에 노력하고 있는지 모호하고, 매우 열심히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 나는 순수하게 공부에 집중한 시간을 체크하고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란 표현으로 내용을 끝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타냈으므로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 ① ‘치다¹’과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② ‘치다¹’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¹’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²’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²’ ㉡ 뜻을 용례로 ‘농부가 낮으로 잔가지를 쳐 냐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2013학년도 수능

12.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빠다	주차장에서 차를 뺐다 .	대다
	(가)	널다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	(나)

- | | (가) | | (나) |
|---|---------------------------|--|-----|
| ① | 풍선에서 바람을 뺐다 . | | 꽃다 |
| ② |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뺐다 . | | 더하다 |
| ③ |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 | | 찾다 |
| ④ | 새집 냄새를 뺐다 . | | 박다 |
| ⑤ |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뺐다 . | | 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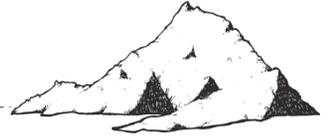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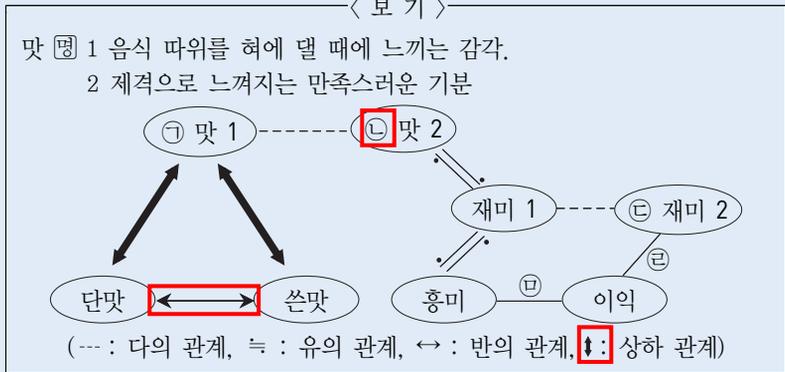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이다. ㉠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한다. 가령 ㉡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반의어에는 ㉢ ‘급속’, ‘비급속’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어, ㉣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어, ㉤ ‘형’, ‘아우’와 ‘출발선’,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어가 있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의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의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2006학년도 수능

14. <보기1>을 참조하여 <보기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보기 1 —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 보기 2 〉

단어	예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서서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 버렸다.	↔ [A]
	[B]	↔ 깎이다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	↔ [C]

- | | [A] | [B] | [C] |
|---|-----|--------------------|------|
| ① | 가다 | 가족에게 위신이 서서 기뻐다. | 내리다 |
| ② | 가다 | 토끼의 귀가 쫓긋 섰다. | 내리다 |
| ③ | 가다 |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 무너지다 |
| ④ | 죽다 | 바지의 주름이 잘 섰다. | 무너지다 |
| ⑤ | 죽다 | 친구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했다. | 벗어나다 |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B형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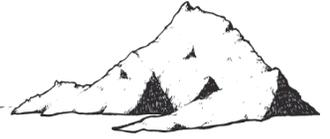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12.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
감나무를	○	○	×	㉡
인내심을	○	○	×	㉢
수염을	○	×	×	㉣
첨단산업을	×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사전 활용하기

: '사전 활용하기' 유형은 2014학년도 A형, B형의 유형별 수능이 실시된 이래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전까지의 수능에서 <보기>의 정보만 갖고 활용하는 형식으로 나왔던 문제들과 달리 개념의 완벽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풀 수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등의 기본적인 문법 개념이 다 끝난 다음 이 내용을 실었어요. 꼭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개념을 확인합시다!

2015학년도 수능 A형·B형 공통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더-하다
 I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II 동사
 ① ㉡ 【…을(…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시오.』

② ㉢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 II ②'이다.

<해당 개념 기출 유형>

[2015학년도 수능 A형 14번]

품사의 의미 및 쓰임

[2015학년도 9월 모평 A형 14번]

품사의 의미 및 쓰임

[2014학년도 수능 A형 12번]

조사(품사의 특징)

[2014학년도 9월 모평 A형 13번]

피동사(품사의 특징)

[2014학년도 6월 모평 A형 · B형 공통 15번]

품사의 의미 및 쓰임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B형 공통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크다

- ①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 ②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① ↔ 작다

작다

- ③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
-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①

- ① '크다 ①'과 '크다 ②'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①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②'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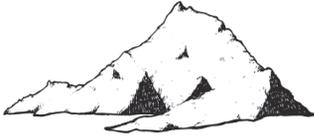
2014학년도 수능 A형

12.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예 ㉠

- ①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B형 공통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바라다 [바라, 바라니] ㉠ [···을]

-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색이 바래다
- ㉦ [···을] 별에 쬐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1과 바래다1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1과 바래다1 ㉤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1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1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1 ㉤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2. <보기>는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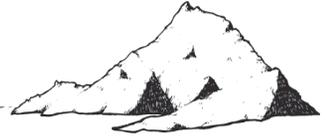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보기 〉

맞다 [맞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 「1」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 과연 그 답이 맞는지는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 「2」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 [···에/에게] ㉣ 음식 맛이 내 입에 맞는다.

맞다 [맞따] [맞아, 맞으니, 맞는[만-]] 「동사」

- 「1」 오는 사람이나 물건을 예의로 받아들이다.
 ㉣ [···을] ㉤ 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다.
- 「2」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는 어떤 때를 대하다.
 ㉥ [···을] ㉦ 그 신문은 창간 일곱 돌을 맞았다.



- ① 맞다²는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군.
- ② 맞다²의 「1」의 용례로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맞다¹와 맞다²는 동음이의어라 할 수 있군.
- ④ 맞다¹의 「2」는 부사어를 만드시 필요로 하는군.
- ⑤ 맞다¹와 맞다²는 활용을 할 때에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군.

2014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

1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르다 ㉠ [골라, 고르니]

- ㉠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
☞ 땅을 고르다.
- ㉡ 밋이나 약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
☞ 밋을 고르다.

고르다 ㉢ [골라, 고르니]

- ㉢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 이익을 고르게 분배하다.
- ㉣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 숨소리가 고르다.

- ① '고르다¹ ㉠'의 용례 '땅을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유의어로는 '메우다'가 가능하겠군.
- ② '고르다² ㉡'의 용례로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고르다² ㉢'의 용례 '숨소리가 고르다'에서 '고르다'의 반의어로는 '거칠다'가 가능하겠군.
- ④ '고르다¹ ㉠' '고르다² ㉡'의 활용 정보에 '골라', '고르니'로 나타난 것을 보니 불규칙 용언이겠군.
- ⑤ '고르다¹ ㉠', '고르다² ㉡'의 품사 표시를 보니, '약기의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동사, '저가 고르다'의 '고르다'는 형용사이겠군.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보 기 > —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ㅑ,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ㅑ’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계]와 같아진다.
- ‘예, 레’ 이외의 ‘ㄷ’은 [계]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ㄷ’은 항상 [ㅣ]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계]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금괴’를 [금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비취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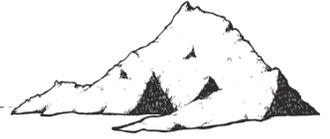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11.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 ㄷ. ‘걸으로’를 [거츠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 ㅁ. ‘낮’은 ‘밤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



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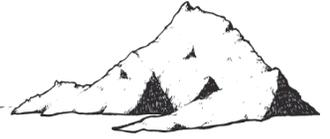
○ ‘하, 나, 기, 주, —’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하, 깨, 기, 췌, 기’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하, 깨’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

- ㉠ ㉡ ㉢
 ① 패다 팬 패었다
 ② 패다 팬 패였다
 ③ 패다 패인 패였다
 ④ 패이다 팬 패었다
 ⑤ 패이다 패인 패였다



② 제2항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규정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기억하기도 쉽고, 표기도 용이하여 효율성도 매우 뛰어나죠.

예) 'family'와 'film'의 발음 차이가 있다고 해서 'ㅎ'이나 'ㅇ'으로 경우에 따라 나눠 표기하게 되면 국어 생활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ㅇ'하나의 소리로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③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규정은 발음대로 표기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특징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우리말의 끝소리에 발음되는 음운은 7개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의 발음과 달리 'ㅅ'받침은 단독으로 'ㄷ'으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ㅅ'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ㄷ'가 모음과 결합하면 'ㅅ'으로 변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요.

예) 'internet'이란 단어는 단독으로는 [인터넷]으로 발음되지만, 'internet에서 찾아보자.'와 같은 문장에서는 [인터넷세서]가 자연스럽습니다.

④ 제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외국어와 국어의 파열음의 차이(음운체계) 때문입니다. 외국어는 파열음이 유성음과 무성음 2개로 나뉘지만, 우리말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3개로 나뉘죠. 그러므로, 하나하나 대응이 될 수 없어 된소리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표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paris'는 실제로 된소리에 가깝게 발음되지만, '파리'로 표기합니다.

⑤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는 규정은 표준어의 기본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표준어는 우선 우리말을 쓰는 화자들에게 편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원칙이라도 실생활에서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사용되지 않으면 사어(死語)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 표현을 인정하는 조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부 조항1) 'ㄷ'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어말에서는 '잉글리시'처럼 '시'로 적고, 자음 앞에서는 '아인슈타인'처럼 '슈'로 적는다.

세부 조항2) 파찰음 표기에서는 '쨌, 자, 주, 저, 초, 차, 추, 처'는 쓰지 않는다.

예) 'camera'는 원래 [캐머러]로 발음되는 것이 원어에 가까워요. 그러나, [카메라]라고 발음하는 현재의 관용을 인정하여 굳어진 예입니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 < 보 기 > —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① |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 사슴 > 사슴 | ㄹ장 > 가장 |
| ③ | 흐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 사름 > 사람 | 드리 > 다리 |
| ⑤ |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열공 Tip! - 종성 제자원리

'중성부용초성'은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는 조항이고, '8중성가죽용'은 그 중에서 8개의 중성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설명이야. 그래서 중세 국어에 선 8중성법이 쓰이기 시작했지.

자음 제자원리

이름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ㅋ	ㅇ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순음(脣音)	ㅁ	ㅂ ㅍ	
치음(齒音)	ㅅ	ㅆ ㅈ	ㅊ
후음(喉音)	ㅇ	ㅎ	

② 중성 제자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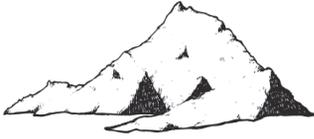
: 중성은 오늘날 모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11자입니다. 크게, ① 상형의 원리(우주 만상의 3가지 근원인 三才 - 天·地·人)를 본따 만든 기본자와 ② 기본자끼리 조합(기본자에 획 추가)하여 만든 초출자, ③ 초출자를 또다시 조합(초출자에 획 추가)하여 만든 재출자가 있습니다.

모음 제자원리

상형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천(天)	·	ㅏ, ㅑ	ㅓ, ㅕ
지(地)	ㅡ	ㅗ, ㅛ	ㅜ, ㅠ
인(人)	ㅣ		

③ 중성 제자원리

: 중성은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성'과 '8중성가죽용'을 근거로, 중성은 따로 제정하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합니다. 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소리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라 실제 발음되는 8개의 자음만으로 충분히 중성을 표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 국어에서는 8중성법이 쓰이게 되었어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그 폭포의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 매우 놀라다)
 - ②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 마음에 들다)
 - ③ 사람들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해 동동 발을 굴렀다. (→ 안타까워하다)
 - ④ 그녀는 손이 재기로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러 다닌다. (→ 일 처리가 빠르다)
 - ⑤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돌렸다. (→ 안쓰러워하다)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A + 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 <보기 2> —

-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 ㄷ. 바가지를 씌우다 ⇒ 바가지이다
- ㄷ.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이다
- ㄹ. ㉠ 담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는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2절 구개음화』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 이(-)’나 ‘- 히 -’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만	마	해돋	해돋	굳	구
이	이	이	이	이	이
다	다	다	다	다	다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3절 ‘ㄷ’소리 받침』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ㅌ’으로 적는다.

덧저고리 ㄷ자리 ㄷ셈 ㄷ어른 ㄷ웃 ㄷ룻 ㄷ뭇 ㄷ뭇 ㄷ핷 ㄷ춧하면 ㄷ[衆] ㄷ ㄷ ㄷ ㄷ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4절 모음』

《제8항》

‘계, 례, 메, 폐, 혜’의 ‘ㄷ’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계수(桂樹)	계수	혜택(惠澤)	혜택	계시다	계시다
핑계	핑계	사례(謝禮)	사례	계집	계집
폐품(廢品)	폐품	연매(連袂)	연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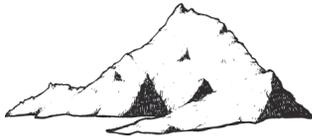
다만, 다음 말은 본음대로 적는다.

계송(揭頌) 계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ㄷ’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ㄱ	ㄴ
의의(意義)	의이	본의(本義)	본이	무늬[紋]	무니	오늬	오니
보늬	보니	닐리리	닐리리	닝큼	닝큼	띠어쓰기	띠어쓰기
하늬바람	하늬바람	씩어	씩어	티어	티어	희망(希望)	희망
희다	희다	유희(遊戱)	유희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5절 두음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歲)	년세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쫘(兩-) 년(年) (몇 년)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 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나열(羅列)	나렬	치열(齒列)	치렬	비열(卑劣)	비렬
분열(分裂)	분렬	선열(先烈)	선렬	진열(陳列)	진렬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昝)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회)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이용(逆利用) 연이율(年利率)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붙임 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數)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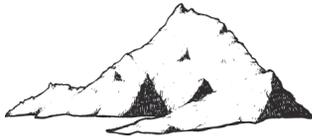
ㄱ	ㄴ	ㄱ	ㄴ	ㄱ	ㄴ
낙원(樂園)	락원	뇌성(雷聲)	뢰성	내일(來日)	래일
누각(樓閣)	루각	노인(老人)	로인	능묘(陵墓)	룽묘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모(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동구릉(東九陵) 가정란(家庭欄)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내월(來來月) 상노인(上老人) 중노동(重勞動) 비논리적(非論理的)



『한글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 제6절 겹쳐 나는 소리』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ㄱ	ㄴ
딱딱	딱다	꽃꽃하다	꽃곳하다	씩씩	씩색	놀놀하다	놀롤하다
씩씩	씩식	눅눅하다	눅눅하다	똑딱똑딱	똑다똑다	밋밋하다	민밋하다
씩씩씩	씩씩씩	씩씩하다	씩씩하다	연연불망 (戀戀不忘)	연련불망	쌈쌈하다	쌈살하다
씩씩하다	씩씩하다	누누이 (屢屢-)	누루이	유유상종 (類類相從)	유류상종	짹짹하다	짹짹하다

『한글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떡이	떡을	떡에	떡도	떡만	손이	손을	손에	손도	손만
팔이	팔을	팔에	팔도	팔만	밤이	밤을	밤에	밤도	밤만
집이	집을	집에	집도	집만	옷이	옷을	옷에	옷도	옷만
콩이	콩을	콩에	콩도	콩만	낮이	낮을	낮에	낮도	낮만
꽃이	꽃을	꽃에	꽃도	꽃만	밭이	밭을	밭에	밭도	밭만
앞이	앞을	앞에	앞도	앞만	밖이	밖을	밖에	밖도	밖만
넋이	넋을	넋에	넋도	넋만	흙이	흙을	흙에	흙도	흙만
삶이	삶을	삶에	삶도	삶만	여덟이	여덟을	여덟에	여덟도	여덟만
끓이	끓을	끓에	끓도	끓만	값이	값을	값에	값도	값만

『한글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신다	신고	신다	신고
민다	민고	민어	민으니	올다	올고	올다	올고
넘다	넘고	넘어	넘으니	입다	입고	입다	입고
웃다	웃고	웃어	웃으니	찾다	찾고	찾다	찾고
좃다	좃고	좃아	좃으니	같다	같고	같다	같고
높다	높고	높아	높으니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떨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2) 본뜻에서 떨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붙임 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5)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	이리로 오시오.	이리로 오시요.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요’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오, 또 저것은 먹이다.

《제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1. ‘-아’로 적는 경우

나아	나아도	나아서	막아	막아도	막아서
앉아	앉아도	앉아서	돌아	돌아도	돌아서
보아	보아도	보아서			

2. ‘-어’로 적는 경우

개어	개어도	개어서	겪어	겪어도	겪어서
되어	되어도	되어서	베어	베어도	베어서
쉬어	쉬어도	쉬어서	저어	저어도	저어서
주어	주어도	주어서	피어	피어도	피어서
희어	희어도	희어서			

《제17항》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요’로 적는다.

읽어	읽어요	참으리	참으리요	좋지	좋지요
----	-----	-----	------	----	-----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들 적

갈다	가니	간	갑니다	가시다	가오
놀다	노니	논	놀니다	노시다	노오
불다	부니	분	불니다	부시다	부오
둥글다	둥그니	둥근	둥굽니다	둥그시다	둥그오
어질다	어지니	어진	어집니다	어지시다	어지오

[붙임] ‘-업-, -음-, -브-’가 붙어서 된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미답다 우습다 미쁘다

《제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칼쪽이	칼쭈기	살살이	살사리	꿀꿀이	꿀꾸리
쌈쌈이	쌈쌈기	눈깜짝이	눈깜짜기	오뎅이	오뎅기

[붙임]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깎두기 팽과리 날라리 누더기 동그라미

《제24항》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시늉말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ㄱ	ㄴ
깜짝이다	깜짜기다	속삭이다	속사기다	꾸벅이다	꾸버기다	숙덕이다	숙더기다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

급히 꾸준히 도저히 딱히 어렵פות이 깨끗이

[붙임]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갑자기 반드시(꼭) 슬며시

2.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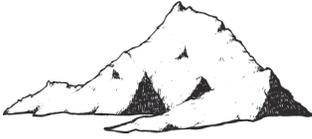
곰곰이 더욱이 생긱이 오뎅이 일찍이 해죽이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하다’나 ‘-없다’를 밝히어 적는다.

1.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딱하다 슬하다 착하다 툼툼하다 폭하다



2.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없다 상없다 시름없다 열없다 하염없다

『한글맞춤법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제2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국말이 꺾꽂이 꽃잎 끝장 물난리 밭천 부엌일 싫증 옷안 웃웃

[붙임 1]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할아버지 할아범

[붙임 2]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골병 골탕 끝탕 며칠 아재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부리나케

[붙임 3] '이[齒, 飠]'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는다.

간니 텃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잇니 젓니 툽니 틀니 가랑니 머릿니

《제28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다달이(달-달-이) 따님(딸-님)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제29항》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반질고리(바느질~) 사흔날(사흘~) 삼집날(삼질~) 설달(설~) 순가락(술~) 이튿날(이틀~) 잔주름(잘~) 푼소(풀~)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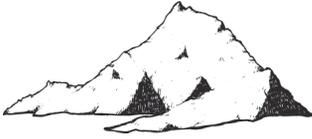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꺾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댕가지 뒗갈망 댕돌 머릿기름 모깃불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뒗머리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한글맞춤법 제6장 그 밖의 것』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1. ‘이’로만 나는 것

가뭇이	깨끗이	나뭇이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	날카로이	대수로이	번거로이	많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작히	죽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	----	----	----	----	----	----	-----	-----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	-----	-----	-----	-----	-----	-----	-----	-----	-----

《제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본음으로 나는 것	속음으로 나는 것
승낙(承諾)	수락(受諾), 쾌락(快諾), 허락(許諾)	만난(萬難)	곤란(困難), 논란(論難)
안녕(安寧)	의령(宜寧), 회령(會寧)	분노(忿怒)	대로(大怒), 희로애락(喜怒哀樂)
토론(討論)	의논(議論)	오륙십(五六十)	오뉴월, 유월(六月)
목재(木材)	모과(木瓜)	십일(十日)	시방정토(十方淨土), 시왕(十王), 시월(十月)
팔일(八日)	초파일(初八日)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으)르거나	-(으)르꺼나	-(으)르걸	(으)르걸	-(으)르계	-(으)르께
-(으)르세라	-(으)르쎄라	-(으)르수록	-(으)르쑤록	-(으)르시	-(으)르씨
-(으)르지니라	-(으)르찌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찌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찌어다
-(으)르진대	-(으)르쎄대	-(으)르진저	-(으)르쎄저	-올시다	-올씨다
-(으)르세	-(으)르쎄	-(으)르지	-(으)르찌	-(으)르지언정	-(으)르찌언정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다음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

-(-)으니까? -(-)으리꼬? -(스)브니까? -(으)리까? -(으)르쏘냐?

《제54항》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ㄱ	ㄴ
심부름꾼	심부름꾼	귀때기	귓대기	익살꾼	익살꾼
볼때기	볼대기	일꾼	일꾼	판자때기	판잣대기
장꾼	장꾼	뒤꿈치	뒷꿈치	장난꾼	장난꾼
팔꿈치	팔꿈치				

《제55항》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적던 다음 말들은 한 가지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맞추다(입을 맞춘다. 양복을 맞춘다.)	마추다	뻘치다(다리를 뻘친다. 멀리 뻘친다.)	뻘치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드라.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그렇게 좋던가?	그렇게 좋든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그 사람 말 잘하든데!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	얼마나 놀랐든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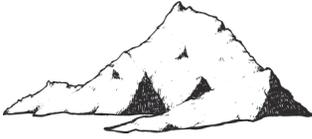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배든지 사과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배던지 사과던지 마음대로 먹어라.
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 해라.	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제57항》

다음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본말		본말		본말	
가름	둘로 가름.	갈음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거름	풀을 썬 거름
걸음	빠른 걸음.	거치다	영월을 거쳐 왔다.	견히다	외상값이 잘 견힌다.
걸잡다	걸잡을 수 없는 상태.	걸잡다	걸잡아서 이틀 걸릴 일.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17. 물결표(~)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9월 15일~9월 25일	김정희(1786~1856)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

18. 드러냄표(`)와 밑줄()

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19. 숨김표(○,)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임을 나타낼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 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모두 3명이다.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0. 빠짐표(□)

(1) 옛 비문이나 문헌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2장 - 제4절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1)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고	ㄱ	ㄴ	비고
거든- 그리다	거뉘- 그리다	1.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2. 작은말은 '가든-그리다'임.	-던지	-든지	
구어-박다	구워-박다	사람이 한 군데에서 만 지내다.	-(으)려고	-(으)르려고 /-(으)르라고	
귀-고리	귀엣-고리		-(으)려야	-(으)르려야 /-(으)르래야	
귀-뿔	귀-뿔		망가-뜨리 다	망그-뜨리다	
귀-지	귀에-지		멸치	머루치 /메리치	
까딱-하면	까뻍-하면		반빳-아치	반비-아치	'반빳' 노릇을 하는 사람. 찬비(饑婢). '반비'는 밥 짓는 일을 맡은 계집종.
꼭두-각시	꼭둑-각시		보습	보십/보섭	
내색	나색	감정이 나타나는 얼굴빛.	본새	뽀새	
내숭- 스럽다	내홍- 스럽다		봉숭아	봉숭화	'봉선화'도 표준어임.
남남- 거리다	암남- 거리다	남남-하다.	뺨-따귀	뺨-따귀/ 뺨-따구니	'뺨'의 비속어임.
남남-이	암남-이		뼈개다[斫]	뼈기다	두 조각으로 가르다.
너[四]	네	~ 돈, ~ 말, ~ 발, ~ 푼.	뼈기다[誇]	뼈개다	뽀내다.
넉[四]	너/네	~ 냥, ~ 되, ~ 섬, ~ 자.	사자-탈	사지-탈	
다다르다	다달다		상-판대기	쌍-판대기	
땀-싸리	대-싸리		서[三]	세/석	~ 돈, ~ 말, ~ 발, ~ 푼.
더부룩 -하다	더뿌룩 -하다/ 듬뿌룩 -하다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 내는 어미는 '-든'임.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던가	-든가		석[三]	세	~ 냥, ~ 되, ~ 섬, ~ 자.
-던걸	-든걸		설령(設令)	서령	
-던고	-든고		-습니다	-읍니다	먹습니다, 갔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름 뒤에는 '-디니다'임.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복수표준어	비고	복수표준어	비고
가는-허리/잔-허리		뜯-깃/뜯-귀신	
가락-옛/가래-옛		마룻-줄/용총-줄	돛대에 매어 놓은 줄. '이어줄'은 비표준어임.
가뭇/가물		마-파람/앞-바람	
가없다/가엎다	가없어/가여워, 가없는 /가여운.	만장-판 /만장-중(滿場中)	
감감-무소식/감감-소식		만큼/만치	
개수-통/설거지-통	'설겅다'는 '설거지하다' 로.	말-동무/말-벗	
개숫-물/설거지-물		매-갈이/매-조미	
갱-옛/집은-옛		매-통/목-매	
-거리다/-대다	가물-, 출렁-.	먹-새/먹음-새	'먹음-먹이'는 비표준어임.
거위-배/훗-배		멸찌감치/멸찌가니 /멸찍이	
깃/해	내 ~, 네 ~, 뉘 ~.	먹통/산-먹/산-먹통	
게을러-빠지다 /게을러-터지다		면-치레/외면-치레	
고깃-간/푸줏-간	'고깃-관, 푸줏-관, 다림-방'은 비표준어임.	모-내다/모-심다	모-내기, 모-심기.
곰곰-곰곰-이		모조록/아무조록	
관계-없다/상관-없다		목관-되/모-되	
교정-보다/준-보다		목화-씨/면화-씨	
구들-재/구재		무심-결/무심-중	
귀통-머리/귀통-배기	'귀통이'의 비어임.	물-봉숭아/물-봉선화	
극성-떨다/극성-부리다		물-부리/빨-부리	
기세-부리다 /기세-피우다		물-심부름/물-시중	
기승-떨다/기승-부리다		물추리-나무 /물추리-막대	
깃-저고리/배내-옷 /배넛-저고리		물-타작/진-타작	
꼬까/때때/고까	~신, ~옷.	민둥-산/별거숭이-산	
꼬리-별/살-별		밑-층/아래-층	
꽃-도미/불-덤		바깥-벽/밭-벽	
나귀/당-나귀		바른/오른[右]	~손, ~쪽, ~편.
날-걸/세-빨	옷판의 짚발 다음의 셋째 발.	발-모가지/발-목쟁이	'발목'의 비속어임.
내리-글씨/세로-글씨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넝쿨/덩굴	'덩쿨'은 비표준어임.	벌레/버리지	'벌거지, 벌러지'는 비표 준어임.



『제 2부 표준 발음법 제1장 - 총칙』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ㄱ	ㄴ	ㅁ	ㅂ	ㅅ
ㄴ	ㅇ	ㅈ	ㅉ	ㅊ	ㅋ	ㅌ	ㄷ	ㅍ	ㅎ	

『제 2부 표준 발음법 제2장 - 자음과 모음』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ㄱ	ㄴ	ㅁ	ㅂ	ㅅ
ㄴ	ㅇ	ㅈ	ㅉ	ㅊ	ㅋ	ㅌ	ㄷ	ㅍ	ㅎ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
ㅓ	ㅖ	ㅗ	ㅛ	ㅜ	ㅠ	ㅡ	ㅣ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ㅝ’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제5항》

‘ㅓ ㅖ ㅗ ㅛ ㅜ ㅠ ㅝ ㅞ ㅟ ㅠ ㅡ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가져[가저]	찌어→찌[찌]	다치어→다쳐[다처]
------------	---------	------------

다만 2. ‘예, 례’ 이외의 ‘κει’는 [케]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계:집]	계시다[계:시다/계:시다]	시계[시계/시계](時計)
연계[연계/연계](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폐](開閉)
혜택[혜:택/혜:택](惠澤)	지혜[지혜/지혜](智慧)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는 [ㄴ]로 발음한다.

닐리리	닝큼	무늬	띄어쓰기	씩어
띄어	희어	희땀다	희망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기]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혀빅/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교재 후기

2015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2015 수능 1등급 검토진' 의 교재 후기

서 승 연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5학번

많은 학생들처럼 저도 고3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생소한 문법 파트였습니다. 그 때 저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신 것이 바로 유현주 선생님과 문법의 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법을 1권에 정리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문법의 끝의 각 단원은 크게 단원의 내용 구조도, 문법 내용,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의 내용 구조도는 복잡한 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조화하였기에 이해를 크게 돕고 복습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문법 내용 부분은 쉽고 꼼꼼한 설명과 함께 문법별로 중요도가 그림과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문제 부분에는 지난 기출문제 중 해당 단원의 내용을 담은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공부한 문법이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문법을 배울 때 유현주 선생님께서 문법은 한 번 잘 잡아놓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초부터 문제풀이까지 담겨있는 문법의 끝은 1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모의고사 분석 등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부분을 복습하기 편리해서 수험생활 중 손이 가장 많이 갔던 책 중 하나인 문법의 끝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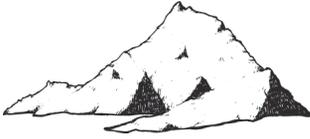
최 세 현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안녕하세요 ^^ 15학년도에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했던 학생입니다. 14년에 이 책으로 열공하면서 서평을 쓰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항상 문법이라고 하면 아 그거 들어봤는데 뭐였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고 좋은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정말 제목그대로 문법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세세한거 아닌가 싶어도 세세함 덕분에 헛갈리는 것도 줄고 예문들을 보면서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도를 보며 먼저 문법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동안 문법을 다치고 14년도에 본 모의고사 중에는 문법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과의 싸움인 고3동안 따로 단권화 할 필요도 없고 궁금할 때마다 사전처럼 뒤져볼 수 있는 책 덕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마스터하여 문법의 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 경우는 일단 문법개념도라는 큰 틀을 암기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며 헛갈리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문법의 큰 틀을 모두 암기한 후 그 개념도를 직접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려본 뒤 제가 제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문들은 암기를 더 쉽게 해주고 개념도는 큰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책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개념도와 예문들이었습니다.

[2014학년도 3월 학력평가 A형 13번] - 피동 표현 13 ①	본문 186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3번] - 품사 13 ②	본문 186
[2005학년도 수능 12번] - 문장의 적절성 판단[피동 표현] 12 ⑤	본문 187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쓰임의 적절성 판단[피동, 사동] 11 ③	본문 187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5번 · B형 12번 공통] - 부정문 15 ②	본문 189
[2014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 · B형 공통 14번] - 문장 14 ②	본문 190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A형 12번] - 부정문 12 ⑤	본문 191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5번 · B형 14번 공통] - 담화 15 ②	본문 199
[2014학년도 예비수능 A형 · B형 공통 14번] -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14 ③	본문 200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 완곡 어법의 이해 11 ①	본문 200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 인용 발화의 개념 적용 12 ①	본문 201
[2013학년도 4월 학력평가 A형 14번] - 구어 담화의 표현 이해하기 14 ③	본문 201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A형 · B형 공통 15번] - 담화의 특징 15 ②	본문 202



[2014학년도 수능 B형 16번] - 중세국어의 음운과 표기	본문
16 ③	305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본문
16 ②	306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특징	본문
16 ①	306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국어의 표기법	본문
16 ⑤	307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6번] - 모음의 변천	본문
16 ②	308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표기법	본문
16 ①	309
[2014학년도 7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의문문	본문
16 ④	310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표기법	본문
16 ⑤	310
[2014학년도 3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	본문
16 ①	311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특징	본문
16 ②	312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본문
16 ⑤	312
[2013학년도 4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국어의 음운	본문
16 ②	313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음운	본문
16 ③	314

43 창의적 사고(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정답 ②】

(정답 해설) ①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주장)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근거)’의 문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문장의 주장은 뒷문장의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근거로 형성된 것이다. 이는 개별적으로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예를 찾으면 된다. 정답은 ②번으로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으므로 ①과 동일하게 ‘귀납적 추론’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번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보편타당한 일반적 진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원리에 특수한 명제를 부여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역적 추론’의 방법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③번은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가 일반적 원리(대전제)에 해당하고,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반적 원리(소전제)에 해당한다. 주장으로 나온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일반적 원리들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므로, 삼단논법이 사용된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④번은 ‘우리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일반적 명제를 근거로 특수한 명제인 ‘언어’의 세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⑤번은 ‘비유만으로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건 아니다.’라는 일반적 명제를 근거로 특수한 명제인 ‘속담의 화용론적 부차 기능’을 적용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본문 p.33]

11 음운의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식물’이 [싱물]로 발음되는 현상은 ‘ㄱ’이 ‘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에 해당된다. ‘입’이 [임]이 되는 현상이나, ‘뜯는’이 [뜨는]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비음화에 해당하는 데, 이들은 모두 음절 말 자음인 안울림 소리인 ‘과열음’과 이어지는 음절의 초성이 울림 소리인 ‘비음’과 충돌할 경우 생기는 현상이므로,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충돌할 때 앞 음절 말 자음이 비음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본문 p.33]

11 음절의 개념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끼’의 경우 ‘ㄱ’은 하나의 자음이므로, 초성에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보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의 중성은 모두 모음이다.

③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훈민정음의 중성부용초성(중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 표기법의 원칙에 따라 초성의 자음이다.

④ 초성이 없는 음절은 ‘아, 야, 와, 의’처럼 초성에 ‘ㅇ’이 온 경우로, 초성의 ‘ㅇ’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음에 해당된다.

⑤ ㄱ~ㄹ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말에서는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 반드시 중성인 모음이 오게 된다.

11 어휘 · 어법 (음운의 변동)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는 음운의 변동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을 묻고 있다. ‘금행열차’는 첫 번째로 ‘그깡열차’로 바뀌어 음운의 축약(ㅂ + ㅎ → ㅍ)이 이루어지며, ‘금행’이란 단어와 ‘열차’란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표준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의 규정으로 인해 ‘ㄴ첨가’가 이루어져 [그깡닐차]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축약과 ㉡첨가가 쓰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가랑잎’은 ‘가랑’과 ‘잎’이 합쳐져 ‘ㄴ첨가’가 이루어져 ‘가랑닐’으로 발음된 후,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가랑닙]으로 발음된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하므로, ㉠교체와 ㉡첨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값지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갑지다’로 발음된 후, 안울림 소리(‘갑’의 ‘ㅂ’받침)와 안울림 소리(‘지’의 ‘ㅈ’받침)가 충돌하여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 [갑찌다]로 발음된다. 이 때,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되며, 된소리 되기는 ㉠교체에 해당된다.

③ ‘술하다’는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순하다’로 발음된 후, 축약(ㄷ+ㅎ→ㅌ)이 이루어져 [수타다]로 발음되므로, ㉠교체와 ㉡축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서른여덟’은 ‘서른’과 ‘여덟’이 합쳐져 ‘ㄴ첨가’가 이루어져 ‘서른녀덟’로 발음된 후,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서른녀덧]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첨가와 ㉢탈락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어휘 · 어법 (음절 끝소리 규칙) 【정답 ④】

(정답 해설) 보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정의와 해당 사례를 묻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④번은 (3)의 설명과 연관되어, (3)의 답이 ‘ㄱ, ㄷ, ㅂ’이기 때문에 ‘박→팍, 밑→뵘’은 이에 해당하는 예가 된다.

(오답 해설) ①의 ㉠은 (1)의 설명대로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을 나누면 ‘부엌, 옷, 빗, 앞’이 되고,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나누면 ‘간, 달, 섬, 창’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엌’이 추가되어 오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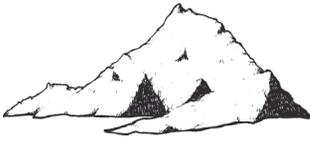
②의 ㉡은 (2)가 ‘음절 끝소리 규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음운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 음절 끝에 오는 경우가 된다.

③의 ㉢은 (3)의 설명에 따르면,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는 ‘ㄱ, ㄷ, ㅂ’으로 볼 수 있다. ‘ㄱ,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 ㅎ’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대표음화 되기 때문이다.

⑤의 ㉣은 음절 끝소리 규칙의 정의에 해당하는 음운을 찾는 문제인데, ‘ㄷ’이 빠졌고, 삭제되어야 하는 ‘ㅅ’이 추가되어 오답이 된다.

12 어휘 · 어법 (표준 발음 분석) 【정답 ⑤】

(정답 해설) ㉠의 ‘얹-도록’과 ‘늪-지’, ㉡의 ‘얹-계’를 비교해 보면, 동일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이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동일하게 [ㄹ] 발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본문 p.71)]

11 음운의 동화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집안일’은 ‘집안’과 ‘일’이 합쳐지며 ‘ㄴ침가’ 현상이 일어나 [집안닐]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후, 연음되어 [지반닐]로 발음된다. 이것은 음운의 침가와 관련된 현상이므로, 음운의 교체에 해당하는 <보기>의 동화와는 상관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붙이다’는 연음된 후, [부티다]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부치다]로 발음된다. 이는 음운의 동화, 교체에 해당한다.

③ ‘권력’은 [퀄력]으로 유음화된다. 이는 음운의 동화, 교체에 해당한다.

④ ‘먹는다’는 [멍는다]로 비음화된다. 이는 음운의 동화, 교체에 해당한다.

⑤ ‘굳이’는 연음된 후, [구디]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구지]로 발음된다. 이는 음운의 동화, 교체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 12번 - (본문 p.72)]

12 음운 변동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ㄹ’의 [와서]는 ‘오(다) + 아서’의 결합으로, 모음 축약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는 ‘가(다) + 아가’ 결합하여 중복되는 ‘ㅏ’ 중 한 모음이 탈락한 모음 탈락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① ‘꽃’과 ‘앞’이 [꼇], [압]으로 발음된 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고, 이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한편, ‘맨입’이 [맨닙]이 된 것은 접두사 ‘맨’과 체언 ‘입’이 결합하며 ‘ㄴ’침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홀이불’은 접두사 ‘홀’이 체언 ‘이불’과 결합하여 ‘ㄴ’침가가 먼저 이루어져 [홀니불]이 된 후,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훈니불], 이후 비음화가 일어나 [훈니불]로 발음되었다. 그러므로, ㄱ과 ㄴ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안다’를 [안:따]로 발음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하고, 이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탁구’를 [탁꾸]로 발음하는 것 또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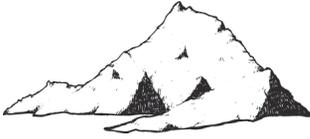
③ ‘엷다’는 먼저 ㄱ의 음절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업다’로 바뀐 후, ㄷ의 경음화(교체)되어 ‘업따’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낱다’를 [나:타]로 발음하는 것은 ‘낱’의 종성 ‘ㅎ’과 ‘다’의 초성 ‘ㄷ’이 만나 ‘ㅌ’으로 발음된 거센소리되기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음 축약에 해당하고,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A형 11번 - (본문 p.72)]

11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입학’은 ‘입’의 끝소리 ‘ㅍ’과 이어지는 초성의 ‘ㅎ’이 만나 ‘ㅍ’이 되어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좋다며’는 ‘좋다’의 어간(중) 끝소리 ‘ㅎ’과 이어지는 초성의 ‘ㄷ’이 만나 ‘ㅌ’이 되어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나눴다’는 어간 ‘나누-’와 어미 ‘-었다’가 만나 축약된 ㉢어간과 어미의 축약이고, ‘피게’는 어간 ‘뜨이-’가 ‘ㅍ’로 축약된 ㉣어간에서만 축약이다. ‘보였다’는 어간 ‘보이-’와 어미 ‘-었다’가 축약된 ㉤어간과 어미의 축약이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 B형 공통 14번(B형 15번)] - (본문 p.124)

14 띄어쓰기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 ‘살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라는 질문의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 사항>의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는 조항에 해당한다. 이 때, 한 단어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살아가다’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 ‘받아가다’는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 사항>의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라는 내용에 의해 하나의 단어인 본용언은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의 내용 때문에 ‘받아 가다’로 띄어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답아가다’는 ‘아니요’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 사항>의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성이라는 내용에 의해 한 단어인 경우는 ‘답아가다’로, ‘본용언+보조 용언’의 경우는 ‘답아 가다’로 둘 다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2번] - 어말어미 (본문 p.125)

12 어휘 · 어법 (어말어미)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는 어말어미의 종류를 나누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은 ‘종결 어미’에 관한 설명이고, ㉡은 ‘연결 어미’, ㉢은 ‘전성 어미’에 관한 설명으로 각각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다. ③의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용언 ‘가다’가 명사인 ‘이유’를 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 해당되므로, ㉢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해설) ① ‘-구나’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② ‘-지’는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등에서 두루 쓰이는 종결 어미 이므로 ㉠에 해당한다.
 ④ ‘-으나’는 앞 문장의 내용과 뒷 문장의 내용이 대조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에 해당한다.
 ⑤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는 어미로 조사인 ‘-에’ 앞에 놓여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 어미로 ㉢에 해당한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2번] - 품사 (본문 p.126)

12 어휘 · 어법 (품사) 【정답 ③】

(정답 해설) ㉡의 ‘춤’은 뒤에 목적격 조사가 오기 때문에 체언의 자리에 위치한다. 또한, 앞에 ‘현란한’이라는 관형어가 ‘춤’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명사이고, ㉢의 ‘걸음’ 역시 뒤에 주격 조사가 오기 때문에 체언의 자리에 위치한다. 앞에 ‘학생들의’라는 관형어가 ‘걸음’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명사이다.

(오답 해설) ㉡의 ‘웃음’은 ‘그’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를 명사형 어미 ‘-음’을 붙여 명사처럼 쓰이도록 만들었다. 겹문장으로 나뉘는 지를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는 멋쩍게 웃었다’+‘그럼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라는 문장으로 서술 기능이 있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또, ㉢의 ‘그림’은 ‘만화를 잘 그린다’의 서술어인 ‘그린다’를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명사인 것처럼 표현하여 역시 동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3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 15번] - 선어말 어미의 의미 파악하기 (본문 p.126)

15 어휘 · 어법 (선어말 어미의 의미) 【정답 ①】

(정답 해설) ① ‘잠시 들어가겠다’는 태도를 ‘완곡한 태도’로 말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오답 해설) ② ‘말하는 이의 의지’가 반영된 태도이다.
 ③ ‘미래의 일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④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드러낸다.
 ⑤ ‘말하는 이의 의지’가 반영된 태도가 드러난다.

46 추론적 사고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사상은 과장보다 높은 직급이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이다. 그러므로,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4번] - 시제 이해하기 (본문 p.179)

14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 '먹고 있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서 행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 해당하고, ㉢ '갔었다'는 과거에 갔던 행위를 한 후, 현재는 행위가 이어지지 않고 완료된 모습을 의미하므로 ㉣에 해당된다. ㉤ '사용해 왔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지만, 미래까지 예측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3번] - (본문 p.179)

13 시제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너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 혼났다'의 문장에서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ㄱ'에 해당하지 않는 예이다.

(오답 해설) ② '나는 예전에 그 집에 살았었다'의 문장에서 '-았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 현재와 완전히 단절된 사건을 나타내는 데 쓰인다.

③ '지난 여름에는 정말 덥더라'의 '-더-'는 과거 회상 선어말 어미이다.

④ '방학 동안 읽은 책이 제법 여러 권이다.'의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책을 읽는 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라 과거인 방학동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낸다.

⑤ '여름에 푸르던 산이 붉게 물들었다'의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B형 공통 15번] - 시제와 상 (본문 p.180)

15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의 '-ㄴ'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미래 시제에 관한 설명은 답이 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②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④ '-어 버렸어요'는 완료상을 나타내어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의미한다.

⑤ '-르'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므로,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 것을 나타낸다.

[2014학년도 3월 학력평가 A형 13번 - 피동 표현 (본문 p.186)]

13 피동 표현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는 피동 표현의 종류를 나타낸 설명이다. ①은 ‘먹었다’로 바꾸었는데, 분석하면 ‘먹(다) + -이- + -었- + 다’이다. 이 때 쓰인 ‘-이’는 ‘먹게 하다’의 의미로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가 쓰인 사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② ‘놀림을 당했다’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의미이므로, ‘-되다’, ‘-게 되다’, ‘-어지다’의 형태와 동일한 피동문이다.

③ ‘잡혔다’는 주어 토끼가 부사어인 사냥꾼에 의해 잡힘을 당하는 의미이므로, 피동 접미사 ‘-히-’가 쓰여 이루어진 피동 표현이다.

④ ‘파괴됐다’는 주어인 생태계가 부사어인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를 당하는 의미이므로, ‘-되다’의 형태가 쓰인 피동문이다.

⑤ ‘만들어졌다’는 주어인 영화가 부사어인 박 감독에 의해 만듦을 당하는 의미이므로, ‘-어지다’의 형태가 쓰인 피동문이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3번 - 품사 (본문 p.186)]

13 어휘·어법 (어말어미)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문제는 사전을 활용하여 품사의 종류에 따른 의미 차이 및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갈-리다’와 ‘갈-리다’는 모두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동사’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품사가 다르다고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갈-리다’는 ① ‘갈다’의 피동사, ② ‘갈다’의 피동사로 의미가 두 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의어(多意語)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갈-리다’는 ‘갈다’에 피동 접미사인 ‘-리-’가 붙어 피동사가 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갈-리다’는 ‘맷돌에 콩이 갈리다’로 피동의 의미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능동으로 바꾸면 ‘맷돌에 콩을 갈다’가 된다. 그러므로 ‘갈다’의 용례에 해당한다.

⑤ ‘갈-리다’의 용례로 ‘논이 깊이 갈리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능동의 의미로 바꾸면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를 갖는다.

[2005학년도 수능 12번 - 문장의 적절성 판단(피동 표현) (본문 p.187)]

12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 ‘물론’은 문맥상 적절한 표현이므로, ‘그런데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끼다’와 ‘들다’란 서술어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끼어들었다’란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틀림없이’는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종결 어미엔 ‘~수도 있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를 제거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③ ‘밟다’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이다. 그러므로 타동사인 ‘미워하다’로 바꿔주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④ ‘풀려지도록’은 분석하면 ‘풀(다) + ‘리’ + ‘-어지(다)’ + ‘도록’의 구조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리’와 ‘-어지다’가 모두 피동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해야 한다. 그러므로, ‘풀리도록’이 적절한 표현이 된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쓰임의 적절성 판단[피동, 사동] (본문 p.187)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불릴’은 ‘(아이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을 의미하므로,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드는 부르다²의 뜻에 적절한 예가 된다. 이 문장에선 사동의 표현으로 쓰였다.

- (오답 해설) ① ‘불렸다’는 부르다 ②의 피동형으로 쓰였다.
- ② ‘불려’는 부르다 ①의 피동형이 더 적절하다.
- ④ ‘불리는’은 부르다²의 사동형으로 쓰였다.
- ⑤ ‘불려야’는 부르다²의 사동형이 더 적절하다.

[201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 15번(B형 12번 공통)] - 부정문 (본문 p.189)

15 부정문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은 부정문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체의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능력 부정인 ‘못’ 부정문이 와야 한다. ㉡은 ‘주체의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 부정인 ‘안’ 부정문임을 알 수 있고, 짧은 부정문인 ‘안’이 쓰이면 된다. ㉢은 ‘안’ 부정문이면, 긴 부정문이기 때문에 ‘아니하다(않다)’가 쓰이면 된다.

[2014학년도 7월 학력평가 A형·B형 공통 14번] - 문장 (본문 p.190)

14 문장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ㄴ의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은 ‘너는 고민할 필요 없다’이다.

- (오답 해설) ① ㄱ의 서술어인 ‘안다’의 반의어는 ‘모른다’이므로, 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들 수 있다.
- ③ ㄷ의 서술어인 ‘있다’의 반의어는 ‘없다’이고, 같은 의미로 ‘방 밖에 있다’의 표현도 가능하다.
- ④ ㄹ의 서술어인 ‘물었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피동접사인 ‘-리-’를 넣어 ‘물렸다’로 쓸 수 있고, 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로 바꾸면 적절한 문장이 된다.
- ⑤ ㅁ의 서술어인 ‘적극적으로 나선다’의 유의 관계에 있는 관용적 표현은 ‘발 벗고 나선다’이다.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A형 12번] - 부정문 (본문 p.191)

12 부정문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꽃이 안 예쁘다’는 의지 부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의지의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 (오답 해설) ① ‘가다’는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가지 않아라’라고 만들 수 없으므로 ‘가지 마라’로 쓸 수 있다.
- ② ‘던지다’의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은 ‘던지지 못했다’이다.
- ③ ‘먹다’의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은 ‘못 먹었다’이다.
- ④ ‘어둡다’의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은 ‘어둡지 않다’이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15번 (B형 14번 공통)] - 답화에 따른 지시어와 호칭어 (본문 p.199)

15 답화에 따른 지시어와 호칭어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 ‘김서방’은 화자인 할머니가 청자인 고모에게 고모부를 가리켜 언급한 말이고, ㉡ ‘아가씨’는 화자인 엄마가 청자인 고모를 가리켜 언급한 말이므로 청자는 고모로 같고, 화자는 각각 할머니와 엄마로 다르다. 그러나 ㉠은 고모부를 가리키고, ㉡은 고모를 가리키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김서방’의 화자는 할머니이고 청자는 고모이다. ㉡ ‘그이’의 화자는 고모이고 청자는 할머니이고 둘 다 가리키는 대상은 ‘고모부’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김서방’의 화자는 할머니이고 청자는 고모이다. ㉢ ‘고모부’는 화자가 고모이고 청자는 은미이므로 화자도 청자도 달라 가리키는 대상인 ‘고모부’가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그이’의 화자는 고모이고 청자는 할머니이다. ㉣ ‘고모부’의 화자는 고모이고 청자는 은미이므로 화자는 고모로 똑같고, 청자가 달라 지시 대상인 ‘고모부’가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아가씨’의 화자는 엄마이고 청자는 고모이다. ㉣ ‘고모’의 화자는 은미이고 청자는 고모이다. 청자는 모두 고모이나 화자가 엄마와 은미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예비수능 모의평가 A형 · B형 공통 14번] -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이해 (본문 p.200)

14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보기>는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③은 의도가 직접 드러난 직접 발화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도를 숨기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간접 발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 완곡 어법의 이해 (본문 p.200)

11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보기>의 내용은 완곡어법을 이르는 것이다. 청자에게 명령 · 요청 · 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특정한 문장 형식을 지칭하는 것인데, ①의 ‘좀’은 ‘조금’을 뜻하지만, ‘조금’이라는 실제 의미보다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전달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절한 예가 된다.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번] - 인용 발화의 개념 적용 (본문 p.201)

12 어휘 · 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①】

(정답 해설) 인용 발화는 보통 ‘~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 등으로 실현되는데, 이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①은 화자가 직접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인용 발화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는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다고 합니다’로 바꿀 수 있다.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는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로 바꿀 수 있다.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는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 였다고 합니다’로 바꿀 수 있다.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는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다고 합니다’로 바꿀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3번] - 품사 (본문 p.209)

13 어휘·어법 (어말어미)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문제는 사전을 활용하여 품사의 종류에 따른 의미 차이 및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갈-리다¹'과 '갈-리다²'는 모두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동사'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품사가 다르다고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갈-리다¹'은 ① '갈다¹①'의 피동사, ② '갈다¹②'의 피동사로 의미가 두 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의어(多意語)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갈-리다²'은 '갈다²'에 피동 접미사인 '-리-'가 붙어 피동사가 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갈-리다¹ ①'은 '맷돌에 콩이 갈리다'로 피동의 의미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능동으로 바꾸면 '맷돌에 콩을 갈다'가 된다. 그러므로 '갈다¹①'의 용례에 해당한다.

⑤ '갈-리다²'의 용례로 '논이 깊이 갈리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능동의 의미로 바꾸면 '농기구나 농기제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를 갖는다.

[2011학년도 수능 11번] - 어휘 분류의 적절성 판단 (본문 p.210)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들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감기가 들다의 '들다'는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 가방을 들다의 '들다'는 '손에 가지다', 단풍이 들다의 '들다'는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 고개를 들다의 '들다'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 반기를 들다의 '들다'는 '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다', 보험을 들다의 '들다'는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미상으로 나뉘보면 'ㄱ, ㄷ, ㅂ'은 모두 어떤 개념이 새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ㄴ, ㄹ, ㅁ'은 위치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010학년도 수능 11번] - 어휘의 음운과 의미의 관계 파악 (본문 p.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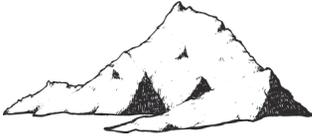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ㄱ은 동음이의어를 나타내고, ㄴ은 발음상 같은 단어들을 나타낸다. ㄷ은 다의어를 뜻하므로 각각의 사례에 대응하면, a는 '식히다'와 '시키다'의 같은 발음으로 인해 오는 혼동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ㄴ에 해당되고, b는 '이연패'라는 단어가 '연패(連敗) : 싸움이나 경기에서 잇따라 패함'과 '연패(連覇) : 잇따라 우승함'으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인 'ㄱ'에 해당된다. c는 신체적 가슴과 정신적 마음 사이에 상관성이 있으므로 다의어인 'ㄷ'에 해당된다.

[2012학년도 수능 11번] - 단어의 결합 방식에 대한 이해 (본문 p.212)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④】

(정답 해설) '무거운 침묵'은 둘 이상의 단어가 어휘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단위처럼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 '무거운'의 자리에 다른 단어들이 오면 이들 단어가 모여 만든 단어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이처럼 본래의 의미에서 떨어져 단어간의 관계에 의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가 그 예에 해당된다. '뜨거운 눈물'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고, '새파란 젊음이'도 실제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된다. 나머지 어휘들은 본래의 사전적 의미를 따르고 있으므로, 정답은 ④이 된다.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 반의어의 이해와 적용 (본문 p.221)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가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다’를 뜻하고, ‘오다’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모두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고 서로 상대적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방향 반의어에 포함된다.

(오답 해설) ① 반의 관계는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단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형성되는 관계를 가리킨다.

②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 외에 성별도 다르므로, 반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선배가 아닌 사람’은 ‘동기’와 ‘후배’가 있으므로,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가 될 수 없다.

④ ‘길지 않다’와 ‘짧다’는 무조건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번] - 어휘의 의미 구별 (본문 p.222)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의미에 따라 어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쪼다’는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란 뜻이고, ‘뺨다’는 ‘짓궂어서 가루로 만들다’, ‘썰다’는 ‘어떤 물체에 칼이나 톱을 대고 아래로 누르면서 날을 앞뒤로 움직여서 잘라 내거나 토막이 나게 하다’, ‘다지다’는 ‘고기, 채소, 양념감 따위를 여러 번 칼질하여 잘게 만들다’를 의미한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 (본문 p.223)

11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는 <보기>의 흥미와 유의 관계인 재미¹에 해당된다. 따라서, 맛²은 유의 관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재미¹과 맛²이 다의 관계인 지는 <보기>를 보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적절치 못한 설명이 된다.

[2006학년도 수능 14번] - 문맥에 따른 다의어의 이해와 반의어 파악 (본문 p.223)

14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 버렸다’의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 작동하다’이다. ‘깎이다’의 반의어로 사용된 ‘서다’는 ‘체면 또는 위신이 서다’가 적절하다.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의 ‘서다’의 반의어는 ‘무너지다’가 적절하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A형·B형 공통 12번] - 단어의 의미 관계 (본문 p.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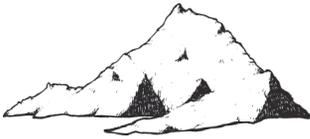
12 어휘·어법 (단어의 의미) 【정답 ③】

(정답 해설) ③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란 ㉠의 ‘인내심’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경우, ‘기르다’ 역시 ‘인내심’과 결합할 수 있으므로 ‘키우다’가 ‘기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경우,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④ 반의 관계는 공통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의 변별적 자질만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교체가 가능하면서 의미가 대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깎다’는 반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기르다’와 ‘키우다’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는 ㉠, ㉡, ㉢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반면에 ‘떡이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는 ㉠ 한 가지 경우 밖에 없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2014학년도 수능 A형 12번 - 조사 (본문 p.226)]

12 어휘 · 어법 (조사) 【정답 ③】

(정답 해설) ‘에서③’은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문장에서는 ‘최소 부사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오히려 ‘에서①’에 부합하여,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 된다. ‘에서③’의 용례에 해당하려면,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우승을 차지했다.’ 정도의 문장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에①’은 격 조사로, ‘에②’는 접속 조사로 쓰였고, ‘에서’는 모두 격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다.

②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의 문장에서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

④ ‘에①①’의 용례는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이다. 이것을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로 쓰면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 된다.

⑤ ‘에①②’의 용례는 ‘형은 방금 집에 왔다.’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형은 방금 집에 도착했다.’인데, 이것을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로 바꾸면 ‘형은 방금 집으로부터 왔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13번 - 품사 (본문 p.227)]

13 어휘 · 어법 (어말어미) 【정답 ②】

(정답 해설) 이 문제는 사전을 활용하여 품사의 종류에 따른 의미 차이 및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갈-리다^ㄷ’과 ‘갈-리다^ㄹ’는 모두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같은 ‘동사’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품사가 다르다고 설명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갈-리다^ㄷ’은 ① ‘갈다^ㄷ①’의 피동사, ② ‘갈다^ㄷ②’의 피동사로 의미가 두 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의어(多意語)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의미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갈-리다^ㄷ’은 ‘갈다’에 피동 접미사인 ‘-리-’가 붙어 피동사가 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갈-리다^ㄷ①’은 ‘멧돌에 콩이 갈리다’로 피동의 의미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능동으로 바꾸면 ‘멧돌에 콩을 갈다’가 된다. 그러므로 ‘갈다^ㄷ①’의 용례에 해당한다.

⑤ ‘갈-리다^ㄷ’의 용례로 ‘눈이 깊이 갈리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능동의 의미로 바꾸면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를 갖는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 B형 공통 15번 - 단어 (본문 p.228)]

15 어휘 · 어법 (단어) 【정답 ⑤】

(정답 해설) 바라다^ㄷ①은 ‘별에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택지의 ‘중이가 누렇게 바라다’는 정반대의 뜻이기 때문에 해당 용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바라다^ㄷ①과 바라다^ㄷ①은 모두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으니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바라다^ㄷ①과 바라다^ㄷ①은 ‘~을’과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바라다^ㄷ①은 ‘~하기를 바라다’의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명령형 문장으로 바꿀 때는 ‘바라’가 적절한 표현이다.

④ 바라다^ㄷ①의 첫 음절은 [바:--] 표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12 어휘·어법 (표준 발음법) 【정답 ①】

(정답 해설) ‘무릎이야’는 ‘무릎’ 뒤의 ‘이야’는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무르피야]로 발음해야 한다. ‘무릎 아래’는 ‘무릎’ 뒤의 ‘아래’가 실질 형태소인 명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무릅아래’→[무르바래]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서넛이나’는 ‘서넛’ 뒤의 ‘이나’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서넛키나]로 발음해야 한다. ‘서넛에서’ 또한 ‘서넛’ 뒤의 ‘에서’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므로 ㉠에 해당하여 [서넛케서]로 발음해야 한다.

③ ‘걸으로’는 ‘걸’ 뒤의 ‘으로’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거트르]로 발음하고, ‘걸아가미’는 ‘걸’ 뒤의 ‘아가미’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걸아가미’→[거다가미]로 발음해야 한다.

④ ‘배꽃이’는 ‘배꽃’ 뒤의 ‘이’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배꼬치]로 발음해야 하고, ‘배꽃 위’는 ‘배꽃’ 뒤의 ‘위’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해당하여 ‘배꽃위’→[배꼬뒤]로 발음해야 한다.

⑤ ‘빛에’는 ‘빛’ 뒤의 ‘에’가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비제]로 발음해야 하고, ‘빛이 며’는 ‘빛’ 뒤의 ‘이며’가 역시 형식 형태소인 조사이기 때문에 ㉠에 해당하여 [비지며]로 발음해야 한다.

11 어휘·어법 (모음의 발음)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를 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항상[]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로, 조사’의’는 [키]로 발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자음이 첫소리가 아닌 음절의 ‘의’는 []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국어의 단모음은 10개를 원칙으로 각각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개’와 ‘게’는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보기>의 첫 번째 규정을 보면 ‘특히 ‘ㄱ’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게]와 같아진다’라는 설명으로 인해 [금게]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두 번째 규정을 보면, ‘예, 레’ 이외의 ‘케’는 [키]로 발음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인해 [지해]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함을 알 수 있다.

④ 규정에 따르면, ‘기’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비취다’를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추론적 사고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보기의 내용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변동하는 현상인 ‘연음’ 법칙의 개념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가는 현상인데 ‘육학년’은 자음으로 끝나긴 했지만 ‘학’의 경우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의 예가 아니기 때문에 연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학년’은 ‘ㄱ, ㄷ, ㄴ, ㄹ’로 끝나는 말이 +ㅎ으로 시작되는 말의 환경에서 → ㅋ, ㅌ, ㅍ, ㅊ’로 변하는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여덟 + 이(조사)’처럼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그대로 적용하여 [여덜비], [여덜비야]가 된다.

③ ‘걸 + 으로(조사)’는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트르]가 맞는 표현이다.

④ ‘빛 + 이(조사), 빛 + 은(조사)’는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비치], [비춘이] 맞다.

⑤ ‘밤낮 + 으로(조사)’는 연음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밤나즈로]가 맞지만, ‘낮일’은 ‘낮 + 일(실질형태소)’이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되어 [난닐]이 된다.

13 표준 발음법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금융’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는 조항에 의해 [금녕]으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의 경우 표기대로 발음되는 것이 허용되어 [그뉥]으로도 발음할 수 있으나 <보기>에는 제29항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한다.

- (오답 해설) ① ‘항로’는 제19항에 따라 받침 ‘ㅇ’에 의해 ‘ㄹ’이 [ㄴ]으로 비음화되어 발음된다.
- ③ ‘광한루’는 제20항에 따라 [광할루]로 유음화되어 발음된다.
- ④ ‘칼날’은 제20항에 따라 [칼랄]로 유음화되어 발음된다.
- ⑤ ‘밤물’은 제18항에 따라 [밤물]로 비음화되어 발음된다.

11 어휘·어법(동화 규정) 【정답 ⑤】

(정답 해설) 보기는 구개음화와 비음화, 유음화에 관한 설명이다. 비음화는 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충돌하거나 비음과 유음이 충돌할 경우 일어나는 현상인데, ‘신문’은 같은 비음끼리 만나고 있으므로 비음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ㄴ’이 ‘ㄹ’에 동화되어 ‘심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오답 해설) ① ‘미닫이’는 첫 번째 조항에 의해 ‘미닫이’의 ‘ㄷ’이 모음 ‘ㅣ’에 동화되어 [미다지]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다.
- ② ‘닫는’은 두 번째 조항에 의해 ‘닫는’의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동화되어 [단느]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다.
- ③ ‘침략’은 세 번째 조항에 의해 ‘침’의 ‘ㄹ’뒤에 ‘략’의 ‘ㄹ’이 위치하여 ‘ㄹ’이 ‘ㄹ’ 뒤에 위치하므로 [침략]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다.
- ④ ‘칼날’은 네 번째 조항에 의해 ‘칼날’에서 ‘날’의 ‘ㄴ’이 ‘칼’의 ‘ㄹ’뒤에 위치하므로 ‘ㄴ’이 ‘ㄹ’에 동화되어 [칼랄]로 발음되는 유음화 현상이다.

11 어휘·어법(음운의 변동) 【정답 ③】

(정답 해설) ‘음운의 탈락’은 <<경우 1>>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 <<경우 2>>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③의 ㉠ ‘밧고’에서 ‘밧’의 겹받침 ‘ㄹ’이 ‘고’의 ‘ㄱ’과 충돌하여 ‘ㄹ’이 탈락하게 됨에 따라 [밧고]로 발음되고, 이후 된소리 되기 현상에 의해 [밧꼬]로 발음된다. 이것은 음운 탈락의 경우 <<경우 2>>에 해당된다. 또한 ㉡ ‘좋아서’에서 ‘좋’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아’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우 1>>에 해당된다.

- (오답 해설) ① ‘않기’는 ‘않’의 겹받침 중 ‘ㅎ’이 ‘기’의 초성인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어 ‘ㅋ’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안키]로 발음되고, 이는 음운의 축약이 반영된 현상이다.
- ㉢ ‘같이’는 ‘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ㄷ’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필요 없이 바로 연음되어 ‘가티’가 되고, 이후 구개음화에 의해 [가치]로 발음된다. 이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 ㉣ ‘멋진’은 ‘멋’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ㅁ’으로 대표음화된 후, 이어지는 초성이 안울림 소리인 ‘ㅈ’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충돌하여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 [멋쩍]으로 발음된다.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되기 현상 모두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의 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조항에 따라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넙적하다, 넓적다리’로 적지 않는데 이유는 겹받침 ‘ㅍ’ (넓-)에서 뒤의 ‘ㅂ’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⑤ ‘넙적하게’는 ‘넓적하게’의 오기로, 한글맞춤법 제21항에 근거하여 「겹받침에서 뒤의 것이 발음되는 경우에는 그 어간의 형태를 밝히어 적고, 앞의 것만 발음되는 경우에는 어간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조항에 따라 ‘넓적하다, 넓적다리’를 ‘넙적하다, 넓적다리’로 적지 않는데 이유는 겹받침 ‘ㅍ’ (넓-)에서 뒤의 ‘ㅂ’이 발음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2014학년도 수능 B형 11번] - 한글 맞춤법, 단어의 형성 (본문 p.264)

11 어휘·어법 (중세 국어의 표기법) 【정답 ②】

(정답 해설)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단어이고,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단어이다. 이들은 다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와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 <보기>에선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단어의 형성을 묻고 있다.

‘길이’는 어근 ‘길-’과 접사 ‘-이’의 결합으로 파생어에 해당하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마중’은 어근 ‘맞-’과 접사 ‘-으’의 결합으로 파생어에 해당하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무덤’은 어근 ‘묻-’과 접사 ‘-음’의 결합으로 파생어에 해당하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자붕’은 어근 ‘집’과 접사 ‘-으’의 결합으로 파생어에 해당하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에 해당한다.
 ‘뒤뜰’은 어근 ‘뒤’와 어근 ‘뜰’의 결합으로 합성어에 해당하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쌀알’은 어근 ‘쌀’과 어근 ‘알’의 결합으로 합성어에 해당하고,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가 된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2번] - (본문 p.265)

12 한글 맞춤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제25항에 따라 부사 ‘일찍’에 ‘-이’가 붙어 부사인 ‘일찍이’가 되는 경우이고, 부사의 원형도 밝히어 적었기 때문에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과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제25항 ‘-하다’가 붙는(급하다) 어근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이므로,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어 ㉠의 예에 해당한다.

② ‘방긋이 웃다’의 ‘방긋이’는 부사 ‘방긋’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고, 원형을 밝히어 적었기 때문에 ㉡의 예에 해당한다.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많다’의 어간 ‘많-’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④ ‘깊이 파다’의 ‘깊이’는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11 어휘·어법 (한글 맞춤법) 【정답 ④】

(정답 해설) ‘장마+비’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므로 1단계에 해당하고, ‘고유어+고유어’의 구성이므로 2단계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발음이 [장마뻬] 또는 [장만뻬]로 발음되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3-1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 된다.

(오답 해설) ① ‘개-+살구’는 ‘개-’가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 흡상하지만 다른’, ‘헛된, 쓸데없는’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이므로 파생어에 해당하여 1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이시옷 표기는 하지 않는다.

② ‘총무+과’는 1단계에는 부합하지만 총무(總務)와 과(課)가 ‘한자어+한자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만두+국’은 1단계에 부합하고, ‘한자어(만두[饅頭])+고유어’의 결합이므로 2단계에도 부합한다. 이후, [만두꾹] 또는 [만둔꾹]으로 발음되므로 3-1단계에 해당한다.

⑤ ‘허드레+일’은 ‘일’의 앞말인 ‘레’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니 1단계를 충족하고, ‘고유어+고유어’의 결합이므로 2단계를 충족한다. 이후, 뒷말의 첫소리 모음 ‘일’의 ‘ㅣ’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허드렌닐]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에 충족한다.

12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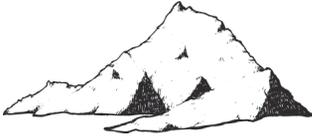
(정답 해설) <보기>에서는 한글 맞춤법이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만 따를 경우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추가 원칙으로 지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퍼서’와 ‘꿇다’는 원래 형태(푸-)에서 벗어난 어간이 그대로 쓰였으므로 소리대로 적는 원칙에 부합하는 예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먹어’와 ‘먹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 ‘머거’와 ‘머근’이 된다. 그러므로 어법에 맞도록 한 표기임을 알 수 있다.

② ‘굳이, 같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 ‘구디’와 ‘가티’가 된다.(구개음화 적용되지 않음)

④ ‘미덥다, 우습다’는 본래 어간인 ‘믿-’과 ‘웃-’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⑤ ‘노인, 원로’는 어법과 상관없이 음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면 된다.



[2014학년도 4월 학력평가 B형 12번] - [본문 p.268]

12 띄어쓰기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그것 뿐’의 ‘그것’은 대명사로 체언에 해당하는데, <보기>에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고 했으므로 ‘뿐’은 붙여 써야 한다. 체언 뒤에는 조사가 와야 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할 만큼’의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뒤에 이어지는 ‘만큼’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다.

② ‘나대로’의 ‘나’는 체언이므로 이어지는 ‘대로’는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한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2014학년도 3월 학력평가 B형 11번] - [본문 p.269]

11 한글 맞춤법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혼삿길’은 ‘혼사’와 ‘길’이 결합된 말로,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인 경우에 해당한다. ‘섣달’은 ‘서’와 ‘달’의 결합이 아닌, ‘설’과 ‘달’의 결합으로 끝소리가 ‘ㄹ’인 말이 된 말과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경우에 해당하여 ‘ㄷ’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해설) ① ‘첫째’는 ‘첫’이라는 관형사 어근에 ‘차례’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인 ‘째’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의 예에 들어가지 않는다. ‘삼진날’은 ‘삼질’과 ‘날’의 결합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② ‘땃돌’은 ‘매’와 ‘돌’이 결합한 경우로 ㉠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단’은 ‘미달’ + ‘이’가 아닌, ‘밀(다)’의 어근 밀’과 ‘단(다)’의 어근 단’이 결합한 후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어에 해당하여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 결합한 것은 맞지만, ‘잎’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부르다’는 ‘설’ + ‘부르다’의 형태로 ㉠의 예에 해당한다.

⑤ ‘셋노랑다’는 접두사 ‘셋’과 ‘노랑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머느리’ 역시 ‘말’ + ‘머느리’가 아닌, 접두사 ‘말’과 ‘머느리’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B형 13번] - 한글 맞춤법, 용언의 활용 [본문 p.270]

13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어간 끝이 ‘ㄷ’인 ‘듣’과 ‘쏟’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된 활용형을 살펴보면 각각, ‘들은’과 ‘쏟은’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쏟은’의 경우 어간의 ‘ㄷ’이 그대로 유지된 반면, ‘들은’의 경우 어간의 ‘ㄷ’이 ‘ㄹ’로 변화되었으므로 ㉠에는 ‘ㄷ’이 ‘ㄹ’로 교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밀다’와 ‘부풀다’를 살펴보면 ‘내밀다’의 ‘내밀’의 활용형은 ‘내민’, ‘부풀다’의 활용형은 ‘부푼’임을 알 수 있는데 ‘부푼’의 경우, ‘ㄹ’이 탈락하여 (형태소 분석은 기본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부풀-’로 표기된다.) 실제로는 ‘부푸-’와 어미 ‘-ㄴ’이 결합하여 ‘부푼’의 형태를 이룬 것이고, ‘내민’의 경우, 역시 ‘ㄹ’이 탈락하여 ‘내미-’와 ‘ㄴ’이 결합하여 ‘내민’의 형태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해설) ① ‘-으-’가 삽입되는 것은 ‘내밀은’과 ‘부푼은’이 어문 규정에 어긋나므로 잘못되었다.

③ 어미의 형태는 모두 그대로 유지되었다. 예를 들어 ‘들은’의 경우 ‘-은’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내민’의 경우에도 ‘-ㄴ’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④ ‘들은’의 경우 ‘ㄷ’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ㄷ’이 ‘ㄹ’로 교체된 것이다. 왜냐하면 ‘들은’의 경우 ‘ㄷ’이 탈락하여 ‘드’ + ‘-은’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듣’이 ‘들’로 변화하여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③번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⑤ 어미의 형태는 어느 경우에도 바뀐 적이 없다.

14 어휘·어법 (개념 적용) 【정답 ⑤】

(정답 해설) 여기에서는 어휘의 지시적 의미 뿐 아니라 문맥적 의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해당된다. ‘와중(渦中)’은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⑤와 같이 ‘모두들 편안하게 잠든’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개최하다’는 ‘어떤 모임이나 행사 따위를 열다’라는 뜻이므로, 월드컵을 개최하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② ‘아연실색’이라는 말은 ‘뜻밖의 일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놀란다’를 뜻하므로 험한 말을 하는 그를 보고 동료들이 놀라는 모습과 호응하는 표현이다.

③ ‘구구절절’은 ‘모든 구절’이다 그러므로 선생님 말씀의 모든 구절이 옳다라는 표현은 적절하다.

④ ‘곤혹스럽다’는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적용) 【정답 ③】

(정답 해설) ‘거르플’은 현대 국어 풀이를 보면 ‘걸음’으로 해석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형을 소리나는대로 적은 ‘이어적기’에 해당한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은 ‘끊어적기’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부터’의 현대 국어 풀이를 보면 ‘부처’로 해석되어 있다. ‘부터 + 시’로 분석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전 ‘부터’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가 현대의 관형격 조사인 ‘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듣즈보디’의 현대 국어 풀이를 보면 ‘듣되’로 해석되어 있다. 이 때, ‘듣되’는 ‘부처의 말씀을 듣되’라는 문장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객체높임 선어말어미 ‘-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듣- + 즈 + 오 + -디’를 이어적기하여 ‘듣즈보디’로 표현한 것이다.

④ ‘니르샤디’는 현대 국어 풀이를 보면 ‘이르시되’로 해석되어 있다. 이는 주어인 ‘부처’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선 주체높임 선어말어미로 ‘-시-’가 사용되는 것이 원래 중세에는 ‘-샤-’를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⑤ ‘배’는 현대 국어 풀이를 보면 ‘바가’로 해석되어 있다.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인 ‘바’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음을 나타낸다.

16 어휘·어법 (중세 국어의 음운과 표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에서는 중성에서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③번은 ‘: 어엿·비’의 둘째 음절의 중성인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다고 설명하여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 수·비’에는 현재 쓰이지 않는 자음인 ‘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초성에 오는 ‘ㅈ’은 ‘ㅈ’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ㅈ·들’의 초성에 오는 ‘ㅈ’도 ‘ㅈ’과 ‘ㄷ’ 두 개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④ ㉠에서 성조를 방점으로 구분하였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 희·여’의 ‘희’에는 ‘:’(상성), ‘여’에는 ‘.’(거성)으로 각각 다른 방점이 쓰여 성조가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뿌·메’는 본래 어간 ‘뿌-’에 명사형 어미인 ‘-음’과 조사 ‘-에’가 쓰인 형태로 현대어처럼 분철(끊어적기) 표기를 쓰면 ‘뿌에’이지만, 연철(이어적기)이 쓰여 ‘뿌·메’로 표기되었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본문 p.306)

16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비교 (개념 적용) 【정답 ②】

(정답 해설) ‘업던’은 현대 국어의 ‘없던’에 대응한다. 표음적 표기로 소리나는 그대로 표기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이어적기가 쓰인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모딘’이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한다. ‘디’이 ‘ㅣ’모음 앞에서 그대로 발음된 것으로 보아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하늘히’에는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 ‘·’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모새’는 현대 국어의 ‘못에’에 대응한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았지만, 중세 국어에서 모음조화에 맞춰 ‘-애’라는 조사를 쓴 후 이어적기를 하여 ‘모새’라고 표기되었다.

⑤ ‘열븐’을 보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븐’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 국어의 특징 (본문 p.306)

16 중세 국어의 특징 (개념 적용) 【정답 ㉠】

(정답 해설) 중세 국어의 표기와 현대 국어의 해석을 비교해 보면, ㉠과 ㉡ 모두가 현대 국어의 관형격조사인 ‘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아들’의 경우 높임의 대상이 아니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면서 끝 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가 쓰였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의’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술위’는 수레이므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서 끝 음절 모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B형 16번] - 중세국어의 표기법 (본문 p.307)

16 어휘·어법 (중세 국어의 표기법) 【정답 ㉡】

(정답 해설) (가)는 이어쓰기인 ‘연서(連書)’의 표기법을 활용한 순경음을 설명하고 있고, (나)는 나란히 쓰기인 ‘병서(並書)’의 표기법을 활용하여 초성 글자를 병서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의 ‘수비’는 순경음 ‘ㅂ’이 사용되어 (가)가 쓰였고, ㉢의 ‘썩르미니’는 합용병서인 ‘ㅅ’이 사용되어 (나)가 쓰였다.

(오답 해설) ㉠의 ‘므츨내’와 ㉣의 ‘땡꺾노니’에서는 연서나 병서의 표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16번] - 모음의 변천 (본문 p.308)

16 어휘·어법 (모음의 변천) 【정답 ㉡】

(정답 해설) ‘사슴’ 사슴’으로 변한 것은 ‘·’가 ‘ㅣ’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또, ‘꺾장’ 가장’으로 변한 것은 ‘·’가 ‘ㅏ’로 변화한 것을 나타내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례가 된다.

(오답 해설) ① ‘마늘 > 마늘’은 ‘·’가 ‘ㅣ’로 변화한 예이지만, ‘흙 > 흙’도 ‘·’가 ‘ㅣ’로 변화한 예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③ ‘하나 > 하나’는 ‘·’가 ‘ㅏ’로 변화한 예, ‘꺾장 > 가장’도 ‘·’가 ‘ㅏ’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④ ‘사름 > 사람’은 ‘·’가 ‘ㅏ’로 변화한 예, ‘다리 > 다리’는 ‘·’가 ‘ㅏ’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

⑤ ‘아들 > 아들’은 ‘·’가 ‘ㅣ’로 변화한 예이지만, ‘다섯 > 다섯’은 ‘·’가 ‘ㅣ’로 변화한 예에 해당한다.